

주최기관 자이 S&D 시행 KB부동산신탁 위탁 태인다인디

● 분양일몰제: 속직사설생활속직사설 근린생활시설 ● 분양규모: 26,268,009㎡ ● 위치: 속초시 중앙동 468-14 의 5필지
 ※ 본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정한 시설표준으로 실례와 다를 수 있으나 관련부처 및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서 약거 적용됨

“더 높이 비상하는 역전의 새해가 되자”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신년 메시지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9일 2021년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소 목사는 “비상(非常) 신앙(信仰), 비상 기도(祈禱), 비상 헌신(獻身)으로 더 높이 비상(飛上)하는 역전(逆轉)의 새해가 되자”며 “총회산하 전국교회 위에 예뻐애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한다.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하고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는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광야 길처럼 우울하고 불안하게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 앞에 다시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새 꿈을 꿈시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꿈을 꾸자”며 “폐하에서도 생명이 있는 꽃은 피어난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의 사막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생명의 꽃씨를 뿌리자. 길이 없어도 걷다 보면 길이 되고, 모래바람 사이로 짙히는 발자국마다 생명의 씨앗은 발아하여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었다. 그러나 희생자는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견뎌내자”며 “함께 힘을 모아 버티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는 없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기대가 바위가 되면 어떤 파도도 이길 수 있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일보DB

다”고 했다.

아울러 “새해 멀리 바라보이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자.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을 흠으셨던 (창 11:9) ‘하나님의 명주계 하심’ 앞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자”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공과 탐욕의 미몽에서 깨어나자.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와 증오의 부유물을 걷어내며, 다시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 위에 사도행전적 신앙을 회복하자”고 했다.

그는 “결국, 코로나19 이후 다시 새롭게 부흥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성령이 역동하시는 성경적 원형교회를 세워가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마 16:18).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불드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행 20:28)”며 “사랑하는 전국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의 파도를 이기는 바위 같은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실 새 은혜를 담은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하자. 태풍 속에도 날개 치며 치솟는 독수리처럼, 포기하지 말고 비상(非常) 신앙(信仰), 비상 기도(祈禱), 비상 헌신(獻身)으로 더 높이 비상(飛上)하는 역전의 한 해를 살자”고 했다.

노형구 기자

“생명을 돌보고 살피는 새해가 되기를”

NCCK 20201 신년 메시지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경호·사진, 총무 이홍정, NCCK)가 최근 2021년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NCCK는 “지난 한 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다”며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야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는 평화와 생명보다 편리와 이윤을 추구해온 삶의 방식이 빚어낸 것”이라며 “서둘러 탄소 제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을 돌보고 살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



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또한 “남북의 평화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의 약속을 주고받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보았지만, 아직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해에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양국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지막으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팬데믹은 재난마저도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유독 크게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아픈 곳일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생명의 이치”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태아 보호 낙태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10만 명 채워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수 10만 명을 충족했다.

지난 11월 30일 시작돼 지난 26일 마감된 이 청원의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로”라며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반대한다”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했다. 또 “철저한 임상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

확한 규정 없는 약물낙태를 반대한다”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의 국민인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5년마다 각 부처에서 계획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며 “생명존중을 위해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청원안의 국회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29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위원회의 회부
청원분야	보건의료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20-12-28	진행단계	위원회심사
동의기간	2020-11-30~2020-12-26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100,000명 100%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년,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신년 메시지 발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사진)가 최근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한 목사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창조와 역사,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린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시작한 2020년, 하지만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총체적인 위기와 파행을 겪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낯선 세상으로 내몰렸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 역시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



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신숙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만들어나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겠다”며 “이것이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큰일을 작

정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초기에 종식되기를 소망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실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개척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더불어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생태계를 잘 돌보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존엄하게 여겨 함께 살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사랑하시어 어둠을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다.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감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창조주가 창조(해시)고 현대 뇌(뇌) 과학이 밝혀 낸 사실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말이 인생을 바꾼다”

멋진 인생 Wonderful Life! 멋진 말 Wonderful Words!

[임판석 지음]

거친 말이 거친 인생을 만들고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내 말이 바로 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세간의 운명만능 금 사과다!” (창 3:1)

말의 교과서
인생 필독서

공민출판사

272면 / 13,000원

화제의 책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들고 거친 말이 거친 인생을 만든다

현대 뇌 과학이 밝혀낸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말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조물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 속에 숨겨진 창조의 힘!

이 책은 바로 왜 말을 잘 해야 하는지?
잘못된 말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그 비밀을 밝혀 줌으로, 참으로 “멋진 인생”을 만드는
지침서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말의 필독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공 인생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임판석

- 광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호남신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대한한약학회 전남도지부 부회장
- 동아문학 동인
- 여수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 한국문학정신 문인협회 정회원
- 전국 원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 봉사상
-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CBS 전남 기독교방송 <시의 산책> 방송 (시로 듣고 시로 읽는 성경-구약편) (2014년) 출간
-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CBS 전남 기독교방송 <시의 산책> 방송 (시로 듣고 시로 읽는 성경-신약편) (2017년) 출간
- 현재 “주제별 성서” 낭송 중

**출판 1개월만에
언어부문
1위 베스트**

임판석 목사의 저서

시로 듣고 시로 읽는 성경 - 구약편 248면 / 13,000원

시로 듣고 시로 읽는 성경 - 신약편 304면 / 13,000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평생을 읽어도 늘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가끔은 성경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요약하여 시로 풀어내어 성도들에게 읽게 했으며 반응이 좋아 전남 CBS에서 2년에 걸쳐 방송하였다. 성경을 읽은 이들은 함축된 시어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며, 성경 읽기가 어려워 손을 놓은 이들에게는 성경을 다시 읽게 하도록 돕는다(책 뒷장에 CD 수록).

연락처 061)653-0675, 654-0675/010-6653-0675 팩스 061)653-0677 메일 atosil50@hanmail.net

한글인터넷주소 쿨민,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02-745-1007 쿨란출판사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 사건으로 맛보는 조건은 믿음”

정갑신 목사, 28일
세이레기도회에서 설교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가 최근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이레기도회'에서 '백락을 묵상하는 믿음'(요 11:23-27, 40)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세이레 기도회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오전 6시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정 목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는 약속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다”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기억한다. 그런데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힘겹게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담긴 약속과 기대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흐름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되는 방식의 삶을 계속해서 요청받으며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초대받고 있다”며 “어제의 기억과 간증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묵상 되는 방식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



정갑신 목사가 세이레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영상 캡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여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약속일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켜야만 하는 맥락을 내가 어느 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 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자동화 되어 있다”며 “현실적인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맥락 속에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흐름이 우리 속에 절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선의 고백과 최선의 신앙고백 그리고 여전한 절망이 있는 모습이 마르

다와 우리들의 문제”라며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그분에 대한 최선의 고백이 무능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어제의 기억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사실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맥락 속에 연결하여 묵상한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상황에 갇힌 채 듣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며 “오늘 주시는 말씀과 위대한 과거의 역사와 역사에 담겨 있는 약속 사이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한 부활이라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이미 부활과 생명이라는 현장이라는 뜻”이라

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상황이 이미 생명이 살아나고 활동하는 장소임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상황”이라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부활과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 사건으로 맛보는 조건은 믿음”이라며 “이 믿음은 얼마나 강력하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우리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해체한다. 그래서 죽음같은 현실이 있다. 절망과 좌절 등 우리를 압박하는 어두운 권세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죽음의 담을 허물고 해체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진

다.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나를 믿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나의 판단이나 현실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께서 모든 상황과 현실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믿음은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이루어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두려움 속에서 속 좁은 선택으로 겨우 버티는 삶에서 우리를 졸업시킨다”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씀은 먼 미래 뿐만 아니라,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은 낯설었던 여러 단어가 어느 세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덧 익숙해졌고, 이러한 단어에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며 “바이러스 확산에 최대 전달 물질은 비말보다는 자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판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만나는 것”이라며 “또 자판은 과거와 내일의 불균형이다. 과거의 교훈을 최소화하고 내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욕망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이러스를 확장 시키는 자판에 맞서 희생적 존재자인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이 땅에 새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야 한다. 빛이 되는 말씀을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며 어제 간증과 기억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를 오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게 된다.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방역 산타, 영상 새벽송… 코로나 속 이색 나눔 눈길

행복한교회, 지난 24일
지역 위한 나눔 행사 개최



인전 마추홀구 주안2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담임 김경임 목사)가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던 12월 24일,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방역 산타, 키보드 산타, 자동차 산타, 영상 새벽송 등의 특색있는 콘셉트로 하루 12시간 동안 계속됐다.

빨간 옷에 담수룩한 수염이 아닌 새하얀 방역복을 입은 산타, 순록이 이끄는 썰매 대신 키보드를 타고 선물을 나르는 산타… 코로나19로 인한 이색적인 풍경에 지역 주민들이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다. 주민들은 ‘매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산타들에게 반가움을 표했다.

행복한교회는 2003년 개척 이후 매년 성탄절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음식으로 한끼 식사를 대접하는 ‘따뜻한 밥상’ 행사를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따뜻한 밥상’을 할 수 없게 되자, 고심 끝에 방역 나눔, 비대면 나눔 등의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방역 산타 역할을 맡은 교회 청년들은 오전 일찍부터 직접 소독기를 들고, 골목 구석구석을 소독했고, 이어 사전 신청을 받은 여러 가정들을 돌며, 방역을 아예 갔다. 방역을 마친 후에는 성도들이 만든 성탄 축하 딱케이크를 나눴다.

이들은 과자와 음료, 마스크(KF94) 등이 들어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직접 들고, 지나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이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등으로 멋을 낸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찾아 아이들에 선물을 전하기도 했

다. 방역산타, 키보드 산타, 자동차 산타, 영상 새벽송 등의 특색있는 콘셉트로 하루 12시간 동안 계속됐다. ©행복한교회

다. 부득이 취소된 ‘따뜻한 밥상’을 대신해 지역 가정들에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다. 행복한교회는 쌀, 김치, 이불 등의 생필품 등을 포함해, 즉석조리 식품(냉동만두, 너비아니, 동그랑땡) 등을 박스에 담아, 직접 배송 서비스에 나섰다. 성탄절 전야의 백미인 새벽송도 이어졌다. 청년들은 각 가정을 돌며, 캐롤을 통해 하나님의 탄생을 알렸다. 다만 코로나 확산을 우려, 직접 부르지 않고,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이를 대체했다.

갓가지 모습으로 등장한 산타들에 주민들도 환호를 보냈다. 한 주민은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며, 동네와 사람들의 분위기가 매우 침체 됐었는데, 오랜만에 동네에 활기가 생긴 것 같다”며 “잊지 않고, 매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행복한 교회가 있어 우리 동네의 행복이 커지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행복한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 ‘꽃 많은 교회’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매년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교회 주변

을 감싼 수많은 꽃들은 이 동네의 또 다른 명물이 된 지 오래다.

김경임 목사는 “우리 지역이 사실 많이 낙후되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꽃을 기르며, 우리교회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설립부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행복한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를 구제주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날 모인 헌금으로 연 4회 정도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목사는 “사실 우리 교회는 매우 작은교회다. 하지만 나누다보니 크고 작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며 “나눔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성탄의 나눔으로 지역 주민들이 잠시라도 웃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이라며 “새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사람들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문체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년 2월까지 연장

“데이터 제공량 2배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상향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데이터도 월 50GB에서 100GB로 대폭 늘려 제공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실시간 방송에 필요한 월 50기가의 이동통신 데이터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종교시설을 통해 감영자가 늘어나던 올해 4-5월 긴급 추진돼,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



서울 도봉구청 관계자가 온라인 예배 기술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던 모습. ©도봉구청

조치가 시행된 8월부터 다시 추진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원 초기인 4, 5월에 787건을 지원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시행한 8월 이후 지원 건수가 12월 22일 기준 4,834건으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해 중소 종교단체의 비대면 전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사업’을 2개월 연장하

면서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지원을 기존 월 50기가바이트(GB)에서 100기가바이트로 상향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등을 통해 고화질(대용량) 영상을 전송하더라도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현재 데이터 지원을 받고있는 종교단체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까지 월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지원받게 된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www.ktoa.or.kr)을 통해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안내서(매뉴얼)’를 내려 받아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해 데이터 지원을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형구 기자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100% 국산

저온농축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의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산사나무열매, 창출, 진피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다스리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산사나무 열매, 창출, 진피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창출·브로콜리(국산), 사과·브로콜리(국산), 사과·브로콜리(국산), 창출·진피·향신료(국산), 산사나무열매(국산), 매실(국산)

특별 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00-9988

구세군 자선냄비, 1만 달러 고액 수표 연일 기부 됐다

남가주 한인들 코로나19에도 구세군 자선 냄비 성금 모금 동참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남가주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은 따뜻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2일과 23일,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 자선냄비에는 연일 1만 달러의 고액 수표가 기부됐다.

기부자는 “올해 거리에서 자선냄비를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 돕는 사회가 되어, 선한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철 사관은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한인들의 사랑의 온정은 남아있었다”며 “올해는 목표액을 정하지 않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과 비슷한 모금이 모여 질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관은 이어 “코로나로 힘든 모금 활동이었지만 그 어느 해 보다 큰 성금



구세군 나성교회에 연일 기부된 1만달러 고액 수표 ©기독일보

을 해 주신 기부자들로 인해 더 따뜻한 연말이 될 것 같다”며 “기부자들의 바람처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세군 자선 냄비 성금 모금에는 고액 기부 외에도 “자신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사람에게 사용해 달라”는 손편



구세군 나성교회 이주철 사관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 한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와 함께 300달러를 기부하는 등 한인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 19일 지역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배포한 데 이어 21일에는 한인가정을 대상으로 100 달러 상당의 성탄선물을 100가정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동욱 기자

오레곤 주 종교모임 제한 법령 전면 취소

지난 18일, 오레곤 주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코비드와 관련된 주 비상 대책 법령을 전면 취소했다.

이로써 오레곤주에 소재한 모든 교회는 코로나19로 관련해 종교 모임으로 인한 민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그동안 오레곤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은 주내 38개 카운티를 코로나19 “극단 수준”, “고수준”, “중간 수준”, “저수준”으로 분류하고, “극단 수준”의 29개 카운티 소속 교회들은 100명 또는 건물 최대 인원의 25% 중 더 작은 수로만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었다. 또 지역 교회들은 제한 위반 시 민사상 벌금, 벌금,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도 있었다.



오리건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 ©케이트 브라운 페이스북

주지사의 주 비상 대책 법령 취소에 따라 인원 제한은 권고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태평양법률협회 오레곤 지부 레이 해키(Ray Hacke) 변호사는 “만약 교회가 지금 그들의 지역 사회 사람을 예배에 초대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근에 유행병에서조차 ‘주 정부는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했다”란 말을 언급하면서 “이번 오레곤주의 결정은 추수감사절 직전에 발표된 로마 가톨릭 교구 브루클린 대 뉴욕 주지사 코모의 대법원판결 결정에 기초했다”고 전했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게 교회의 권리를 브라운 주지사가 존중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결정이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교회에 신뢰하고 옳은 일을 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유진 김 기자

백신 공급에 애타는 美, 세번째 노바백스 대량공급 서둘러

화이자, 모더나 이어 대규모 3상 시험 완성단계

하루 사망자 3천명…당국 신속공급 길 열어

파우치 소장 “2개 회사 제품으로 크게 부족”

미국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첫 백신을 맞으려는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에 부응하여 세 번째 백신이 대량공급된다고 28일 (현지시간) 미 보건당국이 밝혔다.

AP통신과 월 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와 독일회사 바이오엔테크의 제품과 모더나의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한 미국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백신량을 늘리기 위해 노바백스를 곧 공급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NVX-CoV2373’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대규모 임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18세 이상으로 구성된 3만명이 대상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을 시작한 건 노바백스가 5번째다. 이미 식품의약품(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외 존슨앤드존슨 및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3상 임상 단계에 있다.

노바백스는 화이자나 모더나 제품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백신이어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최종 점검이 필요하다는

막바지 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봄에 공급 될 예정이었지만 속도를 내면 공급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바백스는 7월 백악관 백신 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으로부터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지원받았다. 노바백스가 미국에 1억회 접종분을 공급하는 게 지원 목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감염병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미국에서 전국민에게 공급할 백신을 가지려면 최소한 전 인구의 85%에게 접종할 분량이 필요하다. 지금 신속 공급을 시작한 2개 회사 제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28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80만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33만명이 미국내 사망자이다. 미국은 12월 사망자만 벌써 6만5000명에 달했고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추세라고 코로나 관련 통계추적 사이트 “COVID 트래킹 프로젝트”는 밝히고 있다.

미국의 사망자 수는 벌써 몇 주째 하루 3000명을 넘고 있다. 그런데도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여행금지과 자택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벌써 성탄절 향공여

행자가 130명을 돌파한 상태여서, 앞으로도 감염자와 사망자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 현재 공급된 1140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210만회 분의 접종이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집중되고 있는 산발적 통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이 정도의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개인 위생 등 국민의 긴장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네소타주 칼튼 카운티 보건소장 제니 바타는 “백신이 도착했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 즉석 진료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하루 100명에 대한 접종 실시를 목표로 긴급의료팀을 구성해서 ‘드라이브 스루’ 접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행정기관 차고 앞의 눈을 치우고 차도에 늘어선 자동차마다 백신이 실린 카트를 끌고 접근해서 접종을 하는 등 혹한 속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 일단 백신을 맞은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에 귀가 시킨다.

“한 명 한 명에게 백신주사를 놓는 것, 현재로서는 그 것 외에는 코로나19의 대확산과 싸울 방법이 없다”고 바타는 말했다.

차미레 기자

바이든 “동맹과 연합해야 中과 경쟁서 우리 입지 강해져”

“美, 세계로부터 다시 신뢰 얻어야… 혼자서는 해결 못 해”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동맹 및 우호국과의 연합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8일(현지시간)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중계된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관련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거론하며 “생각이 비슷한 우호국, 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 입지가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을 “무역 옹호와 기술, 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동맹과의 연합 구축을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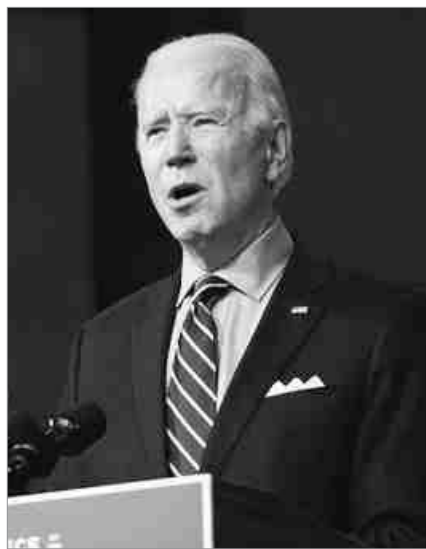
바이든 당선인은 아울러 자국 세계 경제 영향력을 두고 “우리는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한다”라고 평가한 뒤 “우리 민주주의 우호국들과 함께라면 경제적 영향력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교 정책을 비롯해 무역,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변영 보장 등을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한 뒤 “세계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능동적인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세계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시기 가장 막대한 위협을 다루려면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미국 혼자 행동한다면 무엇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거듭 동맹-우호국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애브릴 해인스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 등과 국가 안보 브리핑을 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브리핑을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월링턴 컨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거론하며 “향후 이런 침입을 저지하고, 추적하고, 방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역량과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 사이의 갭을 좁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남영 기자

SAMJUNG

비밀 삼정코로나칸막이

-자형, +자형, ㄷ자형 주문제작

COVID-19 개인사무실, 회의실, 학원, 병원, 음식점, 계산대, 모든 대면장소

제품의 특징점

- 4단계 높낮이 조절가능
-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고정력
- 간단한 설치(양면테이프 부착)
- 저렴한 가격(아크릴 3T, 5T)
- 간편한 청소(아크릴판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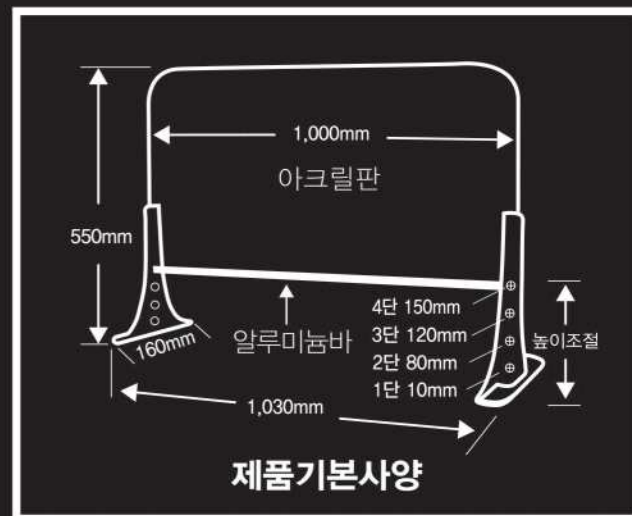
아크릴 두께 : 3mm, 5mm
가로x세로x높이 사이즈 주문



-자형 기본형



사이드 칸막이



제품기본사양

검색창에서 **NAVER 삼정코로나칸막이** 검색해 보세요!

제품 문의 **1811-8504** SAMJUNG SENLUX.CO.

초기 매서인들의 활동 이야기 (5)

이교도라는 굳센 바위를 망치로 깨고 채석하는 석수장과 같은 매서인들
1909년 대한 기독교인들 ‘백만구령운동’에 연보, 7만일 이상 ‘날 연보’ 서원

1910년도 BFBS 대한제국 활동 상세 보고서
인구(추정) 약 10,000,000명,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상류층에서는 유교 의식이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국에는 승려들도 많이 있다. 지난해(1909년) 약 114명의 매서인은 1908년도의 6만581권, 1909년 5만3,996권보다 많은 9만5,252권의 성경책을 판매했다. 전 세계 성경배포량을 보면 1908년도에 16만2,687권, 1909년 35만6,617권이었는데, 지난해의 성경배포량은 66만6,178권이였다. 또한 지난해 회계 기간 대영성서 공회에서 받은 후원금, 판매대금은 39파운드 6실링이었다.

대한국지부: 서울 종로 대영성서공회사
총무: 민후(Mr.Huh Miller)
부총무: 서울 베시 목사(Rev. F.G. Vesey)
서원

지난해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탄되었고, 역사재판소의 치외법권행사가 폐지되었지만, 선교활동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비판은 더이상 나올 수 없다. 교회의 놀랄만한 집회는 선교사들이 부패한 관리들과 무원칙한 정부에 맞서 보호해 주리라는 열망에서였고, 병탄 이후 어떤 사건으로 판단하자면(내주: △1905년 제2차 을사늑약 체결 △1907년 한국군 해산-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 퇴위제2대 황제 순종 즉위 △1909년 대한각사사법권과 경찰관 박탈-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남한 대토벌 작전 △1910년 데라우치 제3대 통감 부임-한일 병합조약 등 앞선 굴곡한 사건과 비교하자면) 비판(투쟁)은 결코 없거나 저항이 줄어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선교활동은 모든 단계에서 전에도 그랬지만 효과적이고 대중적이다. 집회에 모이는 신자들은 이전보다 더 늘었다. ‘백만구령운동’은 대한에서 1909년 가을에 선언된 백만 명의 새로운 신자 달성 목표인데, 대한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열정적으로 간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지난해만큼 이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개인 전도는 많지 않았다. 대한에서 대영성서 공회는 특별보급관 마가복음서를 60만 권 발행했으며 대한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50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복음서들은 읽힐 것이고, 낮게 잡아도 전체 100만 인이 넘을 것 같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 기독교인들은 25만 엔(25,000파운드)을 ‘백만구령운동’에 연보했고, 또한 7만 일 이상 ‘날 연보’를 드려 전도하기를 서원했다. 아직 대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집계할 수 없지만 공공예배에 참석자가 늘었고 문의를 해오는 그룹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보고서에 있는 지난해 대한의 성경 사역에 관한 정보는 『The Bible in the World』에서 보강될 것이다. 1910년 8월 통계는 마펏(Rev. Dr.

Moffet) 목사의 글 ‘Bible Study in Korea’, 9월 통계는 베시(Rev. F.G. Vesey) 목사의 ‘In a Korean Temple of Buddaha’, 10월 통계는 데이비스(Mr. G.T.B. Davis)의 글 ‘Five hundreds miles’ Pilgrimage for a Bible’, 그리고 1911년 1월 통계는 베시의 ‘Sowing and Reaping in Korea’ 기사를 참조한다.

위원회에서는 미국 미시건의 알비온대학(Albion College) 출신의 롬프레이(Mr. Ivan L. Lomprey)를 대한공회 부총무로 임명했다. 롬프레이는 장로교단 소속이며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교육자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 경험도 있어 우리 서울 보급소(Depot)에 기여가 기대된다.

성서공회 주일
성서공회 주일은 5월에 지켜졌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대한 신자들로부터 400엔(40파운드)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우리는 공회와의 협력사업과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해 주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헌금이 기 때문이다.

N.B.S.S.(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난해 NBSS의 활동을 살펴보면 NBSS는 250파운드를 후원했다. 그중 195파운드는 번역비로 지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매서인들을 지원했다. 이러한 후원금으로 매서인들이 1,638권의 성경을 판매했고 이 수량은 NBSS 실제로 계산되었다.

번역
우리는 성경을 완역한 데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 사역은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사명을 받고 발을 디딘 지 27년 만의 성과이고, 성경번역위원회가 구성된 지 24년 만의 쾌거이다. 그 때 참여했던 멤버 중 오늘날까지 있는 사람은 2명뿐인데, 그중 언더우드(Rev. Dr. H.G. Underwood) 목사만이 활발하게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언더우드 박사는 성서번역위원회의 첫 번째 의장이었고, 그가 선교현장을 떠난 짧은 기간 이외에는 계속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했다.

언더우드 박사, 게이 박사, 번역위원회의 총무, 그리고 구약성서 번역의 많은 집을 맡았던 레놀즈(Rev. Dr. W.D. Reynolds) 박사에게, 그리고 번역위원회 한국인 형제들과 조수들, 번역위원회와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큰 빛을 쬔다. 성경 번역은 완역될 때까지 많은 절벽, 걸림돌 수밖에 없었던 일들, 선교사 관리 등 난관과 힘든 업무를 극복하고 완성한 것이다. 미국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대영성서공회와 함께 성경번역 비용을 분담했다.

출판과 출고
지난해 신약성서 2종류 10,000권을 출간했고, 열왕기 상하 각 2,000권, 사무엘상하 각 2,000권, 언문판 마가복음 40,000권, 한글 한자 혼용 신약전서 25,000권 포함 449,000권을 출판했다. 이 수량은 1909년과 비교해 보면 23,500권이 적은 것이



성경을 판매하는 부인 매서인. ©GCAH Digital Library

다. 서울 성서공회 보급소에서는 지난해 57만9,662권을 출고했다. 이는 신구약 합본과 구약성경 590권, 신약성경 5만1,818권과 족복은 52만7,254권의 합계이다. 이 통계는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4만7,578권이 증가한 것이다.

무료 배포
무료 배포는 주로 병원이거나 이주민에게 주어졌다. 지난 12월 성서공회는 서울에 있는 모든 일본인 병원에 반포하기를 받았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일본인 목사들의 협력으로, 일본에서 부산에 도착하는 일본인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바람직한) 모든 일본인에게 복음서나 신약성경을 주었다. 그러한 사역은 잘 진행되었지만, 그 사역은 일본인 목사가 다른 임지로 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매서인들의 사역
지난해 매서인들이 반포한 성경은 9만5,252권이 늘었지만, 매서인들의 평균 판매량은 많지 않았다. 고려해야 할 것은 비록 읍내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대한 사민들은 책 읽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돈이 많이 부족했다. 매서인들은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성경을 판매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야 했고, 선교사들은 주어진 사역에 바쁜 정기적인 일들 때문에 매서인들 감독과 지원을 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서공회 제2총무로 롬프레이를 임명하고서 베시는 대한 매서인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 1910년도 매서인들의 평균 판매 수량은 882권이었으며 1909년의 평균 판매 실적은 529권이였다.

일본인 매서인
일본인 매서인 기무라는 일본의 외판 십이나 대한 반도의 일본 정착촌을 방문했다. 한번 서울을 떠나면 그는 7개월 동안을 활동하기도 했고, 가끔은 질병과 불편한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성실히 매서 활동을 잘 수행했다. 일반 신문에서도 그에 대해 칭찬하는 기사가 있다. 일본에서 주께 고백한 일본인 5명이 대한에 와서 주의 길을 떠났는데, 그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1909년 그는 의주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

하며 성경을 판매했는데 그에게 성경을 산 여인은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데 그가 평양으로 돌아가려는 날 그는 교회에 출석한 그 여인을 만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여인은 성경을 읽었고 마음 깊숙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여인은 의주에서 평양으로 이주해 행복한 결혼을 했고, 끔찍한 진흙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를 기쁨과 신실함으로 섬기고 있다. 매서인 기무라는 지난가를 일본성서공회에서 대한을 방문한 로렌스(Mr. A. Lawrence)의 협력으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도움을 받았다.

중국인 매서인
만주지방 성서공회 지소를 지원하고 있는 탈리(Mr. R.T. Turley)를 통해 공회는 3개월간 중국인 매서인들과 협력을 했다. 그중 우 씨는 아주 성실히 일했는데 4명의 중국인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한에 있는 중국인들의 주님을 향한 변화를 말해주었다. 처음 다른 중국인들은 매서인이 말하는 이야기며 매서인이 판매하는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인 상인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며 또한 성경을 구입하기를 원했다. 더구나 우의 표시로 그들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친구들도 매서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성서공회에서도 탈리와 그의 협력자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매서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탈리의 방문에 감사했고 특별히 우 씨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중국인 매서인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할 줄 몰랐고 우리는 중국어를 몰라 서로 소통하기 힘들었다. 비록 한자 단어를 써서 소통하는 지루한 대화였지만, 그러나 매서인들은 그의 언어로 소통하는 탈리를 환영했다.

서울
7월에 서울을 센터로 해서 사역하는 매서인 감독들과 협력해서, 베시의 지도 아래 매서인들이 서울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 매서인들은 매일 2시간씩 시내에 있는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전도하고 성경을 판매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했다. 이 노력에 대해 밀려

는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는 서울에 14명의 매서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11명의 봉사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도합 25명이 매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8시에 매서인들이 함께 모여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두 사람씩 짝지어 활동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점심때까지 일했고 오후 3시에 다시 모여 선교사가 지도하는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시에 다시 일하러 가서 해가 저서 어두워질 때까지 전도하고 성경을 판매했습니다. Y.M.C.A는 이 매서인들 교육을 위해 강의실 하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베시는 우리 공회 매서인들이 활동하는 센터 여러 곳을 방문해서 실제 사역 방법을 시범 보이고 어떻게 매서인들이 가장 성과를 내며 일할 수 있는가를 교육했다. 매서인들은 진실하고 나무랄 데 없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판매하는 방법을 몰랐다. 베시는 매서인들을 감탄스러운 만큼 잘 교육했기에, 우리는 그가 방문한 센터의 매서인들이 그들의 사역에 있어 전도뿐만 아니라 성경 판매 약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매서인 감독들과 협력할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올해 매서인 감독들의 보고는 가장 만족스러웠는데 바로 이들 선교사가 그들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그들이 씨를 뿌린 곳에서 수확을 했기 때문이다.

바위를 엮다
그리어슨(R. Grierson) 의사의 보고이다. “위대한 이탄 작고 보잘것없는 의무를 실증 내지 않고 끊임 없이 순전한 인내로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마음속에 바라던 것을 얻게 되고 대량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매서인들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교도라는 굳센 바위를 망치로 깨는 석수장이들로서, 강하게 반발하는 큰 바위에서 다른 사역자들이 쓸 수 있는 돌을 채석해준다. 그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 수 없다.”

이전의 선교사들이 울부짖었던 ‘오 바위, 바위, 언제 열릴 거냐?’ 하는 생각은, 매서인들이 복음증거를 받아들일기를 거부하는 마을들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매일 외치는 말이다. 길주에서 일하는 매서인 김가안(Kim Kel An)은 어느 추운 날 밤 마을 밖 어둠 속으로 쫓겨나 한숨 쉬며 기도했는데, 그 마을은 매서인에게 어떤 배려도 허락지 않았다. 그가 탄식을 하며 떠났듯이, 1909년에도 많은 마을과 장이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계속 돌아다니며, 그런 곳에 돌아와 사랑의 권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 1910년 올해에는 그 지방 곳곳에 교회들이 여러 곳 생겨났다. 지난번 그의 속박을 거절했던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람들을 위대하게 변화시킨 그 매서인에게 칭송을 보내며 열렬히 환영했다.” <계속>

『매서인은 교회설립의 선구자였다』에서 발췌 정리
이희희 기자

국내생산제품 MADE IN KOREA

"큐렉스히터"는 동급 최강의 열량과 강력한 난방을 자랑하며
절전형으로 전기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열없는 순간 난방! 쾌적하고 따뜻한 친환경 난방! 히터 전문회사가 만든 제품은 특별합니다!

큐렉스

나노튜브전기히터

트리플 히터(최고급형) MSH-3000K (사무실 및 업소용)

큐렉스 HIT 히트상품

강력한 쾌속 건강난방!
타제품과 비교불가!!

전용리모콘

최강 1일 8시간 사용시(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전기료 부담없이 사용)
하루 전기료 약 1,993원(일반용 전기 저압기준 kw 92.3원)

- ▶ 전력 소비전력: 강 2.7kw, 중 2.1kw, 약 1.5kw, 절전 700w
- ▶ 순간 열방식 탄소 섬유 램프 적용(안전화산방시)
- ▶ 고강력 특수 알루미늄 반사판 채택 ▶ 예약시간 7시간 30분
- ▶ 전자식 조절장치 자동(리모콘, 수동방식) ▶ 전도 안전 스위치 작동
- ▶ 바위가 있어 이동이 용이 ▶ 제품사이즈: 52 x 25 x 68cm, 무게: 7.2kg

스탠드형(최고급형) MSH-2200S (사무실 및 가정용)

90도 회전사용

강력한 쾌속 건강난방!
타제품과 비교불가!!

전용리모콘

최강 1일 8시간 사용시(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전기료 부담없이 사용)
하루 전기료 약 1,329원(일반용 전기 저압기준 kw 92.3원)

- ▶ 전력 소비전력: 강 1.8kw, 중 1.35kw, 약 900w, 절전 500w
- ▶ 순간 열방식 탄소 섬유 램프 적용(안전화산방시)
- ▶ 높이조절: 수동, 좌우회전: 자동 ▶ 이중안전기능(근접센서)
- ▶ LCD창 장착 ▶ 리모콘 및 수동작동 ▶ 전열판 90도 회전(집중난방시)
- ▶ 제품사이즈: 높이 110 ~ 최고 140cm

가정용 MSH-2200H

최강 1일 8시간 사용시(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전기료 부담없이 사용)
하루 전기료 약 724원(일반용 전기 저압기준 kw 92.3원)

- ▶ 전력 소비전력: 강 980w, 약 450w
- ▶ 자동 회전기능 ▶ 로터리 조절 방식(수동)
- ▶ 전도안전 스위치 ▶ 리모콘 및 수동작동
- ▶ 전열판 90도 회전(집중난방시) ▶ 순간 열방식 탄소 섬유 램프 적용(안전화산방시)



벽걸이형(최고급형) MSH-2200W

최강 1일 8시간 사용시(사업장 및 사무실에서 전기료 부담없이 사용)
하루 전기료 약 1,329원(일반용 전기 저압기준 kw 92.3원)

- ▶ 전력 소비전력: 강 1.8kw, 중 1.35kw, 약 900w, 절전 500w
- ▶ 좌우회전 자동, 각도조절 수동
- ▶ 리모콘 및 수동작동
- ▶ 순간 열방식 탄소 섬유 램프 적용(안전화산방시)



큐렉스나노튜브(나노탄소섬유)히터는 **산소를 태우지 않아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산소결핍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목이 따가운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열없이 초절전 고효율의 난방을 제공합니다. 큐렉스히터는 **건강난방! 따뜻한 난방! 절전형난방!**을 제공하는 차세대 신개념의 히터입니다.

QUIREXS 큐렉스



특별할인 판매!!
(각 품목당 100대 한정)

큐렉스와 함께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 국민은행 : 884201-04-143445(비전케이)

■ 비전케이 www.vjk.co.kr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4-서울양천-0287호 양천구 목동 917-9 | 이메일 주소 : bbb0011@hanmail.net

구입문의 02-2168-3866

www.papercorea.co.kr

폐지,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생각하고 버리는 박스·헌책·잡지·신문
페이퍼코리아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 새 쇼핑백·새 포대지·새 신문이 됩니다
재생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페이퍼코리아!
자원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더 건강한 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생활 속의 친환경-페이퍼코리아
PAPER COREA

정부, 코로나 3차 피해 확산에 9.3조 긴급 투입

580만명 최대 30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당초 ‘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달 8일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에도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은 ‘2.5+α’ 단계로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위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피해

가 커지자 ‘3조원+α’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원) 뿐 아니라 방역강화(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원)를 묶어 총 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580만명 규모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감경을 위해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음압병상·장바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 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조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서로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용품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고 소상공인 배팅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유급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분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 미가입특고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조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배팅목 자금은 1월6일 사업공고를 시작해 11월 안내문자 발송과 온라인 신청을 거쳐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월 사업공고를 통해 11월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단위:원
긴급피해지원 5.6조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소상공인 배팅목 자금 -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조	
309만명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용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87만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	500억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방역강화 0.8조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장		4000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000억	
맞춤형지원 패키지 2.9조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가판로·매출회복 지원	5000억	
26만명	긴급 유동성 공급	5000억	
근로자 실직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9000억	
102만명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일자리	5000억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 등	2000억	
취약계층	긴급복지 확대	1000억	
57만명	돌봄부담 완화	2000억	
자료: 정부			

20.12.29 안지혜 그래픽기자 hokma@newsis.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뉴스시스

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만에 종결… ‘성추행’ 규명 불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 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시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오후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각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10일 자정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성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 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과거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던 모습. © 뉴스시스

서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효행위 등 2차 가해 고소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올해 7월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부터 차장 지휘하에 생활안전부장, 수사부장이 참여하는 46명의 ‘전담수사 TF’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에 대해 현장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성추행 혐의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자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건까지 우회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한 수사 결과에서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배경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에 대해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배경에 대해 “동기 부분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의 준항고 기각으로 5개월만에 했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변사사건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변사사건만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게 돼있다”며 “범죄 관련성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다른 경우는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수사에서 성추행 피소 관련 우회수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휴대전화 인데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확인 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것도 봤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윤아 기자

靑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공급”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지난 28일 스테파네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27분 간 이어진 반셀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분량의 4000만 도스(1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한 2000만 도스보다 2배 늘어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 합의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우리 국민 2000만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물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 계약 체결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협상이 끝나면 (공급 가능)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UNTACT

시대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WON

슬기로운 금융 TIP

매인 화면에서 바로 보는 타행 계좌 간편 조회

매인 화면에서 바로 보는 내 계좌 총 잔액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잔액 표시 On-Off

메신저 복사로 계좌번호 자동입력

우리WON뱅크

다운로드 하기

조국 장관에 안중근, 예수님까지 소환? ‘신성모독에 조씨 가문의...’

[기고] 남명 조식과 안중근 모친 조마리아

◆배천(白川) 조씨와 임천(林川) 조씨, 그리고 남명 조식과 조(趙)마리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도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조국”이라며 조국 가족을 옹호하던 자들이 이 상황을 접하고 이제 무어라 할지 금금하다.

그 가운데는 조국(曹國)을 자랑스러운 창녕 조씨 남명 조식(曹植)의 후손이라 해서, 관련 직계 후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인물도 있었다. 작계 후손도 아닌 조국을 ‘칼일명 경의검, 敬義劍’ 찬 선비였던 율곡은 대학자 남명에 비유한 것은 분명 남명에 대한 모독이었다.

아들 수사를 막으려 3종 4종의 방어벽을 치며 눈물겹게 인간임을 다하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황당한 창작으로 추 장관 아들을 옹호한 자도 있었다. 군대의 속성을 그렇게도 모른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이제 조국과 그 가족은 “끝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서 예수님 길을 가고 있다”는 한 칼럼니스트의 글도 나왔다. 심지어 모독이요 신성모독이다.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 중 안중근 의사와 남명 조식을 소환한 이 두 사건은 묘하게도 배천 조씨와 임천 조씨 후손들을 소환했다. 무슨 의미일까? 마치 일종의 평행이론과 유사한 교묘한 데칼코마니를 이루어 흥미를 끈다.

즉 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는 배천 조씨 후예였고, 남명 조식은 임천 조씨 집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의 끈을 가진 학자였다.

◆안중근 의사 모친 배천 조씨, 조마리아 여사 순환 안씨, ‘토마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이 집행되기 사흘 전, 어머니에게 “예수를 찬미합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앞으로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첨저녁 문안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 뵈을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 아들 도마 올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마리아 여사는 두 아들 안중근, 안공근을 통해 “내가 만약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조소거리가 된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사이트 타이젠 저, 이승은 역, 《내 마음의 안중근》, 2002)”라는



조덕영 박사

답장을 보냈다.

조마리아 여사는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마는 현세에서 재화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거라”고 했다. 아들에게 나라를 위해 가까이 죽으라니! 중봉 조현을 배출한 배천 조씨 후예답게 그 아들에 그 어머니였다.

조마리아 여사는 일찌감치 산구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왕성했던 황해도의 명가 배천 조씨 집안의 후예다웠던 것이다. 배천 조씨는 두 명의 조선 개국공신을 배출하며 조선시대 현달한 인물들이 쏟아졌다.

이 배천 조씨 집안에서 유학자요 임진왜란 당시 3대 의병장 중 한 분이었던 중봉 조현 선생이 나왔다. 기독교계에서는 장로교 조항목 목사가 있다.

중봉 조현은 자신의 책(해동명적 조전혁 주)에서 배천 조씨와 임천 조씨는 송 태조 조광윤의 후손으로 수강(송태조의 손자 유길의 제5자, 훗날 고려에서 천혁으로 개명)과 숙부 유고(훗날 고려에서 지린으로 개명)가 함께 호서 지방에 상륙한 같은 뿌리라 했다.

◆남명 조식과 임천 조씨(ft. 조지서, 조원)

남명 조식(1501-1572)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인물이다. 다만 퇴계와 달리 남명은 임금의 강령에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백성 편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생활 철학자요 제자들 양성에 전념한 학자였다.

진히 임진왜란(1592년)을 겪진 않았으나 생시 왜구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놀랐게도 그의 제자 가운데 55명이 왜군에 맞선 의병장이 되었음을 볼 때, 남명이 어떤 학자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 가운데는 남명의 제자요 외손사위로 임진왜란 3대 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곽재우도 있었다. 이렇게 고경명과 더불어 중봉 조현과 곽재우는 임진왜란 당시 분명히 일어난 국난극복의 3대 선봉장들이었다. 조식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임진왜란 당시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남명은 58세 되던 1558년 4월 10일에서 26일까지 지리산(두류산) 청학동 일대를 유람하고, 그 기록을 《유두류록(遊頭流錄)》으로 남긴다.

여기서 조식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세 명의 대학자를 소개한다. 바로 한유환과 조선 초기 유학자 일두 정여창(1450-1504), 그리고 하동을 대표하는 조선 유학자 지족당 조지서(1454-1504)였다.

성종은 자신의 아들 연산군을 과거에 3번 장원한 당대 수재요 창백리에 뽐낼 만큼 강력한 학자이자 관리였던 조지서에게 말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스승 조지서는 낙향



조국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 ©뉴스시스



조국 전 장관을 예수에 비유한 페이스북 글과 글을 작성한 푸드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온라인 캡처

했지만, 연산군의 폭정에 상소를 올렸다가 그만 자신의 제자 연산군에게 참수를 당하고 만다. 스승을 참수하다니! 조선 인재의 애석하고 처참한 죽음이였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 이후 조지서는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죽은 관료의 직위를 높이는 일)된다. 조지서의 부인은 정몽주의 현손녀(증손자의 딸)였다.

조식은 “훌륭한 사람에게 어찌 군더더기 말이 필요하겠는가”로 시작하는 조지서의 묘비 비문을 지었다. 실제 비문은 낡아서 알아보기 어렵고 《남명집》에 실린 내용이 전한다.

조식의 할머니가 임천 조씨였고 조지서가 임천 조씨였으며, 정몽주의 현손녀로 조지서의 부인이었던 정씨조차 임천 조씨 출신 조식 할머니의 친정 집안 관련 사람이었으니 임천 조씨에 대한 조식의 남다른 애뜻함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다. 병조판서를 지내고 사후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의병들을 배출한 이준민(李俊民)이 임천 조씨 사위를 맞은 것이다. 바로 명종 19년 약관 20세에 진사시에

장원 급제한 윤강 조원(趙瑗)이었다. 윤강보다 7살 연장자인 율곡 이이와 동방(同榜, 일종의 공동 수석)이었다.

이 이준민의 모친이 조언형의 딸이었으니, 조식(曹植)은 바로 이준민의 스승이요 외숙(外叔)이었다. 조카의 사위가 장원급제하였다니, 조식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조식은 조원에게 “서일병증조장원원(書劄柄贈趙壯元環, 칼자루에 적어서 장원 조원에게 주다)”라는 사첩을 주었다.

이 임천 조씨 후손이 지금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는 추미에 아들 군 탈영 관련 재수사의 목줄을 쥐고 있어 흥미롭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학교 후배요 사법고시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고검장은 바로 전 국회의부장을 지낸 조부영 씨의 자제다.

◆배천 조씨와 임천 조씨

조씨들은 본(本)이 다르더라도 통혼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기에, 요즘은 자유로워진 면이 있다. 하지만 배천 조씨와 임천 조씨는 조금 다르다. 결국 같은 송 태조의

자손임을 알기 때문이다.

배천 조씨(같은 송 태조 후손인 진보 조씨 포함)와 임천 조씨는 5천만 인구 중 도합 약 0.2%가 채 되지 않는다. 배천 조씨가 약 8만 명 내외에 임천 조씨가 1만 5천명 내외다. 비록 그 숫자는 적으나 대법원장과 국회의부장을 모두 배출하였다.

인문사회 계열이 아닌 자연과학자 출신의 최초 서울대 총장(조완규)과 최초 여검사요 최초 재판사를 모두 역임한 조배수 전 의원에 이 가문이다. 지금은 로고스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복음법률가회 회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남산나훈아와 더불어 또 다른 남자 가수의 양대 산맥인 조영남(배천)-조용필(임천)이 모두 이 가문이다. NASA 출신 국내 최초 아폴로 박사로 명성을 날린 조경철 박사도 이 가문이다.

배천 조씨는 모든 성씨 가운데 최초로 족보를 디지털화한 성씨로도 유명하다. 노벨상에 근접한 원로 뇌과학자 조장희, 한국을 빛낸 100인 개척자에 선발된 공학자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경희대 설립자 조영식 박사, 교수 자제로 인천대 총장을 역임한 경영학자 조동성 박사도 이 송 태조 가문이다.

‘동네 꼬마 녀석들’로 시작하는 ‘연’이라는 가요와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당뇨병에 희망을 주고 있는 탁월한 생명과학자 조진원 교수(연세대)도 이 가문이다. 고려 시대 후반 송에서 귀화하여 숫자가 많지 않기에, 간혹 동성동본을 만나면 정말 반갑기 그지없다.

필자의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낮 선 한 분이 상가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다. 배천 조씨라 했다. 가까운 친척 한 사람 없던 낯선 타향(혹시 6.25 때 피난민이었을까?)에서, 임천 조씨이신 필자의 부친 덕분에 자신의 뿌리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고 늘 의지했던 어른신이라 했다. 인터넷이 없던 아주 오래전 일이다.

필자도 1990년대 교회를 지하에 개척을 했던 시절 영관급 장교 출신의 건물주가 조씨였다.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온 배천 조씨(34세 燠자 항열) 집안이었다. 비록 서울에서 만났지만 알고 보니 필자의 충청도 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고맙게도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신은 가톨릭이지만 온 집안, 친척 가운데 목사, 장로가 그득하다 하셨다. 기독교 고장, 황해도 배천 출신이 아닌가!

배천 조씨는 중봉 조현을 비롯해 유달리 호국보훈의 인물과 많은 무과 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다. 임천 조씨 시조 조전혁은 강감찬 장군을 도와 거란족을 토벌한 공(功)으로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렇지 않은 가문이 없었지만, 유난히 전통적으로 충효를 강조해 온 집안이다. 오죽하면 서울 종로 효자동 이름의 유래도 이 가문에서 나왔겠는가. 많은 훌륭한 가문들처럼 21세기에도 어지러운 세상의 빛이 되는 가문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유한양행

모두의 건강도
서로의 거리도

더 가까워질
내일을 기대합니다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참고심의회: 2020-1560-003205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연주의에 대한 위필드의 ‘기독교 초자연주의’ 변증 II

최덕함 박사
개혁신학포럼
책임전문위원



2. 위필드

벤자민 브레킨리지 위필드(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1851~1921)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와 함께 3대 칼빈주의자로 불린다. 동시대를 살았던 세 사람은 비록 국적은 달랐지만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학문적으로 칼빈주의(Calvinism)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빛나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위필드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칼빈 이후 모든 신학자들을 다 모아도 위필드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극찬한다. 위필드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프란시스 패튼(Francis L. Patten, 1843~1932)은 위필드를 평하기를 “탁월하되, 독보적으로 탁월한 학자이며 책에 둘러싸여 산 사람”이라 했다.

프린스턴 신학교로 위필드가 청빙한 탁월한 성경신학자 게할더스 보스(Geerdhardus Vos, 1862~1949)도 위필드의 높고도 깊은 학식과 인품을 존경한 나머지 위필드가 쓰러지는 날까지 그와 산책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위필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임에 틀림없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18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신학의 파고가 미 대륙을 완전히 뒤덮었던 때였다. 자유주의 신학은 미국의 대학들을 먼저 전점해 갔다. 1805년에 이르자 하버드대학이 유니테리언(Unitarian)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탈선에 앞장섰고, 회중교회들은 엔도버 신학교를 세웠다. 이에 당시까지 신학교를 구비하지 못했던 미국의 장로교가 자국을 받아 신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했고 드디어 1812년 8월에 지금의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후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에 침투한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하는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했다. 설립 이후 100년 동안 칼빈주의로 무장한 교수들

이 준비했고,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프린스턴 교수들의 가르침과 학문적 성과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 세계 곳곳에 칼빈주의를 실어 나르는 참병 역할을 했다. 1912년 5월에 개최된 프린스턴 신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전 세계 기독교단체들의 대표들과 신학자 목회자들은 프린스턴의 경건과 학문, 그리고 수준 높은 강의와 저술에 찬사를 보냈다. 구(舊) 프린스턴의 교수와 신학자들과 저술가들의 신학적 예리함과 철저함은 개혁과 정통주의를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거의 모든 방면에서 합리주의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 같은 개념들에 대한 반대가 팽배한 가운데서 구 프린스턴의 존재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사학자 마크 놀(Mark. A. Noll)은 프린스턴 신학을 ‘고전적 개혁주의 신앙의 19세기적 미국적 표현’이라 했다.

위필드 신학은 바로 이런 구(舊) 프린스턴 신학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깊다. 사가(史家)들은 위필드가말로 구 프

린스턴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의 제자인 메이첸(J. Gresham Machen, 1881~1937)이 위필드의 장례식장에서 “위필드의 관(棺)과 함께 구 프린스턴의 신학도 사라졌다”고 말할 만큼 위필드 신학은 구 프린스턴 신학에서 거의 절대적이었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 1823~1886)의 손자이자 20년 동안 위필드의 조교였으며, 위필드 이후 그의 교수직을 물려받은 핫지 주니어(Casper Wistar Hodge, J, 1870~1937)는 “위필드는 학식 부분에서는 이전의 모든 조직신학자들을 능가했고, 적어도 영어권에서 위필드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위필드의 신학을 이렇게까지 칭송하고 높이 평가하는가? 과연 위필드의 신학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혹은 교훈들이 무엇인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위필드 신학을 오늘에 조명해야 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 우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후반으로 여행해야 한다. <계속>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끝과 시작은 함께 만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새 해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끝맺음을 잘할 수 있을까요?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버림에 있습니다. 끝맺음이란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버림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가방에 새로운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가방을 비우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움이란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습니다. 버림은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잘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요 15:2하).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나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를 잘할 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도 어떤 의미에서 버림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아 우리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쓴 뿌리로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과 잘못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유쾌함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함께 서로를 용서해 줌으로 끝맺음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

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지난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잊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셋째,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유통기간이 끝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후사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정한 후사는 롯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간 사람들은 관계를 지속해야 할 제자들이었습니다.

넷째, 끝맺음을 잘하는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끝맺음을 하십시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해석과 반응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살전 5:18). 우선 살아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롬 8:28).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끝맺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를 통해 새 해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드리는 기도

이효상 목사

근대문화진흥원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혼자 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 다시 주님앞에 엎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역적 참세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괴물을 알며 그 누가 그 슬픔을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하나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짚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위로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또 다시 가는 사명의 이 길 그러나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평탄할 때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 되찾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없는 예배 자리, 내가 먼저 채우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보다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치유와 사랑의 손길 다시 펴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수고와 봉사의 삶이 진하지 않게 하소서. 2021년에는 이 땅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소망의 삶을 주옵소서. 균열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 교회가 하나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갈라진 민족의 허리, 분열과 갈등 넘고 넘어서 화해와 회복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삶의 길에 뺨개쳐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 길 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되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공동체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서 내집마련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800만원대 명품탄생!

부러워할것인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것인가!

465세대(1차) 59㎡ A·B·C / 74㎡ A·B / 84㎡ A·B

신주거미학

보라매 센트럴바움

Boramae Central Baum

합리적인 가격의 가치

평당 1,800만원대
거품없는 합리적 가격대
신규 명품 아파트

역세권 쾌속교통의 가치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도보 5분, 경전철 신림선
보라매 병원역 개통

혁신 설계의 가치

남향위주 단지배치
4Bay 판상형 구조(일부세대)
혁신 평면설계

힐링 자원의 가치

약 13만평 보라매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숲세권
에코 프리미엄

원스톱 생활 인프라의 가치

종합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미래 프리미엄의 가치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림선, 서부선 예정
미래 프리미엄

사업시행 (주)보라매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태원건설 주식회사

신 박 사 아시아신박(주)

02)6332.3322

계약금 정찰제

가전제품 풀옵션

발코니 무상!

중도금 60%대출

가나의 혼인 잔치 말씀에 순종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
설교: 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김충렬 박사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반응이 조금 엉뚱하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해결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정은커녕 통명스럽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에 개입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상황을 진행시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1.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믿음에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5절).”

거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인이란 자기의 주인에게만 고분고분 복종하는 습성을 간파하고 민첩하게 대처합니다. 하인들의 눈에는 그때의 주님이 평범한 손님으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인에게 지시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간곡한 청탁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함을 교훈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나중을 알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은 그 옛날 수태고지(受胎告知, Annunciation)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준 때에는 오셉과 약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약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라는 엄청난 예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2.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만을 온전히 불

잡고 의지해야만 한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식은 동네 전체의 경사여서, 항상 축제행사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리아는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하나 더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가타부타’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입니다. 공언히 구실을 붙여 “이기죽거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몹시 알미를 정도로 짓궂게 자주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뜻을 달고 제법 잘 나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껏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암초에 부딪힐 때입니다. 어느 날 인생 항해가 파선의 위기에 내몰릴 것 같거든, 얼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4, 26절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주님이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마치실 때 마무리를 하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지시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총체적 난국이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룬 부분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에 합격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16절에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싹통에 싹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하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모두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 정리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집의 난국에서 우리 삶의 총체적 불황을 깨닫게 됩니다. 부도가 나서 도산 직전에 있는 인생, 좌초될 수밖에 없는 인생 경영을 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으라는 교훈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으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을 위한 믿음의 삶

본문: 고후 5:1, 6-7
설교: 켈러 한인 제일 침례교회
박진우 목사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좀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느 해보다 더욱 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라듯이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까? 자세히 돌아보면 분명 이 세상은 편리해졌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더 힘들어 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해를 보낸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송구영신의 뜻이 뭔가요? 그 뜻은 오래된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송구영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내야 할 오래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썩어질 육체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맞이하는 참된 송구 영신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의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탄생”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억하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탄생”은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여기에 이미 존재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믿

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고 한해동안 그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음 해에 우리의 소원한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시간이 되면 안됩니다. 바울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1절 마지막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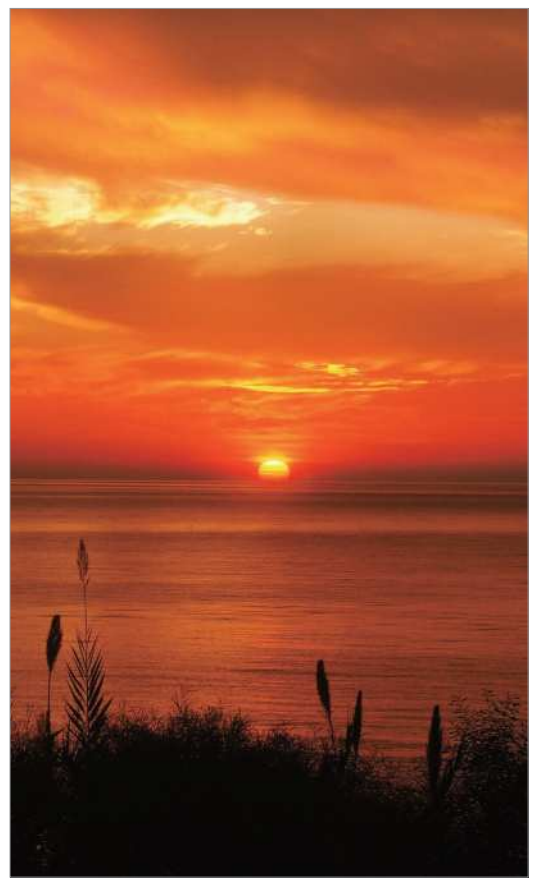
여러분들은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확실한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뒤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에게 확실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에는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삶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고후 4장 16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면 안됩니다. 목사가 보이는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면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보이는 목사를 위해 교회의 일을 하면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부모가 보이는 자녀를 위해 살아가면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면 안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산다면 그 행위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는 그 영원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송구 영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출퇴근재해보상
·업무상질병보상
·보험금여지급



빠른 대응을 돕는!

02
요양서비스

·요양지원(치료)
·재요양·추가상병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서비스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질투의 하나님이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시편 79편 강해
설교: 천안 UBF
오묘한 목사



요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5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 질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면이 변화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때 아삼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삼은 지은이로 볼 수도 있고 편잡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삼은 궁전의 약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3절을 보면 아삼은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황폐한 현실을 아뢰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기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오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쳐들어 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을 무너뜨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은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노획물로 빼앗아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주의 성전의 도구를 빼앗아가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이런 현실로 아삼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삼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의 종들의 사체를 나뭇가지에 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들의 사체를 장례하지 않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사체를 뜯어먹었습니다. 독수리가 개가 뜯어먹습니다.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랑에 흘러내렸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이 사체를 갈기갈기 찢어먹고 있습니다. 쥐가 뜯어먹어 슈퍼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하였습니다.

2. 주의 질투가 불붙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 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4-5절).”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암몬이나 시리아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비죽이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꼴 좋다고 하였습니

다. 그들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조소와 비방을 같이 받았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삼은 이런 조롱과 수치가 바벨론의 힘 때문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시요 하나님의 질투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의 노하시며 언제까지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온전한 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진정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워하면 질투하여 삼사 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 자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삼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질투를 멈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만 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고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키하시기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무척 사모하십니다. 시키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킵니다. 마치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질투하여 분노하십니다.

3. 주의 긍휼로 영접하소서

6-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질투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가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나라들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삼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삼은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아삼은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

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책망을 듣고도 목을 꺾듯이 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

다. 아삼은 이제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로 가련한 이스라엘을 속히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십니다.

얼마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인본적인가 아

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

십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를 긍휼로 바꾸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사랑하여주

십니다. 아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만방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우리의 목전에서 복수하소서

10-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해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삼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 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삼은 갇힌 자의 탄식이 주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이 탄식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죽이기로 정해진 자일지라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비방한 이웃들에게 그 비방을 그들이 칠 배나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 진히 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3절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아삼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면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삼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영원히 통치하는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독일보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GRAND OPEN

올림픽 공원 바로 앞!
잠실 소형 아파트!



청약통장 無

지하철역 도보 2분 거리

1.5룸 2룸

에스아이팰리스 송파 올림픽공원

홍보관 예약방문 시 사은품 증정

기대 그 이상의 가치 PREMIUM 5

1더블역세권-5호선 방이역, 9호선 올림픽공원역

2전세대 북층형 풀오피션 APT

3올림픽공원, 롯데 월드타워 조망(일부세대)

4주변 전세값 수준의 합리적 분양가

5혁신평면 1.5룸/2룸

에스아이팰리스 송파 올림픽공원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등록을 하시면 분양관련 정보를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99-9055

분양홍보관 | 9호선 송파나루역 3번출구

시행 (주)무궁화신탁 시공 (주)이엔건설

*상기 CG 및 아이스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면적 세대수 등 설계 관련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거리 관련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이비 지도를 통해 측정함 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부동산 매매 관련 내용은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년 월 소득 169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됐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 올랐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236만8000원~270만4000원 사이인 부부가구도 신규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30만원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어르신은 총 256만 명이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다은 기자

서울시 '명예의 전당'에 시민 삶에 귀감된 시민·단체 헌액

두 차례 공적심사 거쳐 5명 최종선정

서울시는 시민의 삶에 귀감이 되는 올해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으로 개인 2명과 단체 3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으로는 이주순(71·여)씨와 김동현(38·남)씨가 선정됐다.

이씨는 18년째 서울시 어린이병원 복합중증장애 환자의 걷기운동 보조와 무연고 아동환자 생일상 차려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 자원봉사자다. 그는 장기간 침상생활로 근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신체 재활을 돕고 있다.

김씨는 의료사고로 1급 시각장애인이 된 후 변호사가 돼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근무하며 공익소송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판사로 임용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단체로는 독거노인의 영양을 보충하고 안부를 점검하며 365 사람의 우유나눔을 하고 있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구강보건에 앞장선 비영리단체 '스마일재단',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벌여 온 '쿨시티강동네트워크'가 선정됐다.

5회째인 올해 헌액 대상 선정은 4~5월에 추천된 36건의 후보 중에서 시 감사위원회의 공적사실조사와 헌액선정위원회의 2차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다만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헌액식이 열리지 않는다. 헌액증서는 헌액자에게 별도 전달한다.



2020년 서울시 명예의 전당 헌액자 부조 ©서울시

시는 시민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에 헌액자의 사진과 공적이 담긴 동판 부조상을 설치해 이들의 이야기를 서울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헌액증서를 수여하고 축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서울시민의 삶에 귀감이 되는 헌액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예의 전당은 시청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기여한 헌액자들을 예우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했다.

이루리 기자

배달음식점 주방 CCTV 공개하면 '인센티브' 제공

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등 늘어나는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내년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모두어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피자, 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도 확대한다. 올해 268개소인 위생등급 지정 치킨과 배달음식점을 내년엔 5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선 특별 관리한다. 식약처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그 횟수를 내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내년엔 족발, 피자, 치킨, 분식 등 4종이 점검 대상이다. 2022년엔 중식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한 달 전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부적합 업체의 경우 공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도 연



주방 내부를 실시간 공개(CCTV)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확인하는 영상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 실시된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은 회원사를, 지자체는 비회원업소를 담당해 점검하게 된다.

음식점을 방문해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해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이물관리도 강화된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내년 중 신설한다. 만약 음식점에서 위해도·현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다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선다. 대상 이물은 쥐, 칼날, 못, 유리 등이다.

이와 함께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선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다은 기자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코로나19 긴급돌봄 인력모집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가격리생활시설, 코호트(동일집단)격리시설, 확진자 치료병원에 파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돌봄 공백에 놓인 어르신 및 장애인을 돌봄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인력은 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근무수급은 2만1046원이다. 야간 또는 주말휴

일 근무 시 1.5배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코호트격리시설 및 확진자 치료 병원 파견인력의 경우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시설퇴소 후 격리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2021년 기준 시급 1만702원)과 필요 시 별도의 자가격리 숙소도 지원한다.

선정된 돌봄인력은 시설 입소 전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게 된다. 시설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지원단 모집기간은 지난 28일부터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시 진행된다. 내년 1월 3일까지의 기간 중 모집된 인력을 대상으로 1차 채용을 진행한다.

자세한 문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루리 기자

믿음과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술개발 및 시공 품질관리로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성누리건설 주식회사
SUNGNURI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전 용 건

경기사무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4-21 T. 031-392-0812~3

영남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54-12 201호 T. 054-857-9274

호남사무실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230-11 T. 061-653-3292

Email: snr0812@naver.com

부동산

안양 교회임대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매물크기: 2층: 45평 지층, 3층: 20평

-거래가격: 총 마다 가격이 다름(연락요망)
*즉시목회가능 주거가능

연락처 ☎ 010-3412-3976

초역세권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도 시흥시 송지로(능곡동) 58
-거래금액: 9억1천만원(재정부와 상의후
3천~5천사이 조절가능)

-매물크기: 분양평수 170.38평(실평수 98평)

연락처 ☎ 010-2765-1601

전원주택 / 작은교회

-매물크기: 대지: 전용면적 186평
건축물: 전체 74평
-거래금액: 9억원 (900,000,000)
-매물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교개에서
약 4km)
▶문의 ☎010-2282-1119(건물주)

부천 교회임대

-거래금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매물위치: 경기도 부천 중동(부흥로200)

-매물크기: 221.66m2 (약 65평)

연락처 ☎ 010-8870-4049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55평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가능)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가능)
▶연락처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매물크기: 지분- 249.4㎡ (75.44평)
/상가- 122.94㎡(37.18평) (유아실, 목양실)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매물위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승APT 상가

▶연락처 ☎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매물위치: 서울시 광진구 노루산 시장 앞
1. 노루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3. 방음이 잘되어 있음.
6. 예배실, 화장실1개, 부엌, 사무실겸 목양실, 유
아실, 창고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 ☎010-8884-0291

영흥도 교회매매

-매물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674

-매물가격: 27억 (분할매매가능)

-매물크기: 대지 (920/278.3평)

연락처 ☎ 010-4759-5946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內)
-교회운영 즉시 가능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 영국, 캐나다)
-공동주택(단지內) 3,000세대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010-5779-2368

사당동 교회임대

- 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119
-매매가: 보증금 4,000만원/월세 140만
-매물크기: 165.00㎡(약 50평)

*대부분의 성구와 시설을 그대로 놓고 갑니다.

연락처 ☎ 010-6253-0273

최고입지 교회매매

대지(303평, 2필지) -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건물: 교회-1층(62평) - 소예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 화장실, 2층(62평) -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래금액: 7억원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매물크기: 대 2805㎡
+ 최고급 유립식 단독주택 2동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속속,
-기도원, 연수원, K팝속소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內
[매물장점]
-4층 건물에 2층, 바로 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목양실 있음 전기판별 있어 생활 가능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3층의 3층 304호
난방방식: 도시가스
상가용주차장/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르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신문 공고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용달(540417-1*****) 2020.4.29. 사망
최후주소: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1-19, 비05호 (행신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1228 상속한정승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2.10.
◎ 청구인: 김명중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85, 1010호
(망월동, 힐스테이트에코마사)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철우(671027-1*****) 2014.3.16.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로13길 19 (금호동2가)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4268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16
◎ 청구인: 박수현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고양시 일산동구 산동로 251 (정발산동)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영수(541009-1*****) 2020.6.26. 사망
최후주소: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108
(송정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2305 상속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6.
◎ 청구인: 1. 안점자 2. 김경미 3. 김나연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해빛4로 1, 104동 2201호
(이지더원1차오션포레)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19년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0조가7771 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2.4.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0.10.7.
◎ 청구인: 1. 김현규 2. 김지연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성철(650901-1*****) 2020.3.27. 사망
최후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42나길 6-5, 501호 (화곡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3486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16.
◎ 청구인: 최은화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71, 1004동 110호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민수(760428-2*****) 2020.8.24. 사망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06길 25, 346호
(역삼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5429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2.8.
◎ 청구인: 황정숙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대전 서구 괴정로 181번길 18-4
(용문동)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동윤(370520-1*****) 2020.8.10. 사망
최후주소: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62나길 3, 101호 (신길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53997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0.30.
◎ 청구인: 정성욱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8
(상도동)

2020.12.30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미(640502-2*****) 2020.9.17. 사망
최후주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912번길 18, 101호 (부평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년단2250 상속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0.11.4.
◎ 청구인: 1. 진누리울림 2. 진누리우리 3. 진혁진
◎ 공고기간: 2020.12.30. ~ 2021.2.28.
◎ 신고처: 서울 강남구 학동로42길 21, 3층
(논현동)

2020.12.30

분 실 공 고

분 실 내 용 :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부동산 표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21,
더 오페라 2차 1동 1525호

공고인: 이명옥(010-8812-1169)

2020.12.30

교회대출안내

능치 못함이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3%대 (감정가의 70~80% 대출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신교국장 임 요 셉 장로

문의전화 : 010-8652-5600, 010-9681-5600

Tel: 031)439-5555 / Tel : 452-5800
<http://www.love-ch.net> /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서초구방배동
신축종교시설(방송시설)

■매물위치:서울시서초구방배동 751-4
방배까페거리대로변위치(이수교차로 근교)
■면적:실사용 면적 676.63㎡ (204.68평)
■매매가격: 19억원(VAT별도)
■기본시설: 엘리베이터, 내부 바닥난방(도시가스),
시스템(천정형)냉난방기 10대, 공기정화기,
LED조명, 부출입구,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목사님 전용화장실 등

■특징:

- ① 4호선 동작역, 9호선 구반포역 인근
- ② 서래마을 및 서리풀 고급주택 밀집, 유동인구 많음
- ③ 2020년 7월 주상복합 신축, 종교시설 용도 득

문의: 010-7175-7757

교회맞춤대출

금리 연3%~

APT(2순위), 어린이집,

요양원, 기타부동산

건축자금, 미준공자금

전문상담사 박주영 목사

010-8995-3909

신협모집법인 엠브이파트너스소속
금융연합회코드 00003658

질문 통해 맛있게 묵상하는 ‘마태복음’

왕인성 목사의 신간 '질문 마태복음'이 지난 23일 출간됐다.

질문은 무심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을 붙잡아 예기치 않은 깊은 감동과 통찰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질문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 책은 17년 동안 부산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사역 중인 저자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들을 화두 삼아 한 장씩 재미있게 써 내려간 책이다. 저자는 마태복음을 읽으며 무심코 넘어갈 만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마태복음은 왜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나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 전인데 왜 남편이라고 불렀나요?”,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의 불평은 부당한가요?” “하



나님은 은밀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나요?” “기름 좀 나누어 주면 어디 뒀나요?” 등 마태복음에서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던 질문을 뽑아 균형 잡힌 신학으로 풀어 주며 바른 성경 읽기로 인도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을 ‘먹는 콘서트’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들을 화두 삼아 한장 씩 차근차근 묵상하는 과정에서 본문을 소화시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프롤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 책의 각 장 끝에는 ‘영양만점 메시지’ 코너를 두어, 해당 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자의 묵상, 핵심 메시지들을 맛있게 잘 버무렸다.

쉽고 재미 있게 성경을 읽게 도와주는 이 책은 성경 통독을 할 때 참고 도서로 활용하면 좋다. 또한 개인 묵상집, 새벽 예배 인도 자료, 각종 성경 공부의 기본 교재, 신학교 수업 교재, 목

회자의 설교 준비 가이드라인 등으로 활용해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저자 왕인성 목사는 모태신앙인으로 일찍이 목회자의 꿈과 소명을 갖고 성장했으며, 서울 광성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저자는 현재 부산장신대학교에서 17년 가까이 신약학 교수로 봉직하며 큰 보람과 기쁨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질 예비 목회자들을 성심껏 섬기고 있다. 더 불어 부산 동신교회에서 15년째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영어 영문학)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신약학 석사), Drew University(신약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미국 수학 경험과 영문학 전공을 살려 다양한 신학서적을 번역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전민수 기자

서평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단순한 예배 공간? 교회도 ‘신박한 정리’ 필요해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집에 오래 있다 보면 집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집은 학교이자 직장이고 극장이자 맛집이다. 영화도 집에서 보고, 배달음식도 집에서 먹고, 학교 수업도 집에서 하고, 회사 일도 집에서 한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집이지만, 자신의 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집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업무를 못 내고 살아간다.

정리정돈을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 집도 나무가 가지를 정리 하듯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정돈이 잘 되고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될 때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된다.

그런데 집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리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지영 씨다. 이지영 씨는 공간 크리에이티브인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지영 씨는 ‘정리왕 썬더 이대표’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집을 더욱 편안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학창 시절 IMF로 식구들이 뿔뿔히 흩어지는 경험을 한 후 ‘집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결혼 후 신혼집에서 취미 삼아 해본 인테리어와 가구 리폼이 주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공간 컨설팅크리에이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대구에서 시작한 ‘우리집 공간 컨설팅’은 얼마 전 서울에도 직영점을 오픈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리 수납, 인테리어 관련 강연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tvN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 공간 전문가로 출연해 최적화된 공간을 선보이며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신박한’ 정리 수납 꿀팁을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지영 씨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람이 우선인 공간,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집이 천편일률적으로 잡지 화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의 구조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비슷한 이유



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식탁은 주방에 있어야 하고, 가구는 안방에 있어야 한다. 소파와 TV는 거실에 있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불편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공간에 자신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공간 컨설팅을 하면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공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공간마다 주요한 쓰임을 정하고, 역할에 맞게 가구와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다. 공간에 역할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가구도 제 역할을 찾고, 더 쓸모 있게 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집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집은 나와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어야 한다.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집의 가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은 현재의 내가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걱정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물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집이라는 공간이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걱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건축가 김재관 씨는 ‘집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집의 가치를 사람에게 둔다면 집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무조건 버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아님을 말한다. 절제 ‘버리기’를 위한 버리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먼저 파악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관할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을 우선시하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니멀’도 좋지만 ‘라이프’에 집중하는 삶은 더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런데 공간을

정리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매일의 일상이 바뀝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 집니다. 정말 많은 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분이 집 정리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분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에 인물도 좋고 재력에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였다. 그런 분이 뜻밖에도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3일 동안의 집정리가 다 끝났을 때 저자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실 집을 정리해 놓고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유품 정리 하듯 공간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3일 만에 그동안 살아왔던 공간이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므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삶의 희망을 찾게 되었다. 공간의 정리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 책은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정리하는 팁만을 주는 책이 아니다. 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집은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 공간의 변화를 줄 때 인생도 정리되고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간에 변화를 주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면 교회의 공간은 어떠한 할까? 교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 가까이 한 사람도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집의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가지는 사람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교회 이재영 목사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대다수 성경 독자는 요한계시록을 흥미롭지만 좌절감을 안겨 주는 수수께끼 책으로 본다.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은 무수히 많은 주석과 예언 도표와 연구 논문을 낳았으나,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 이 책을 낭독하거나 설교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개신교 교파에서 사용하는 『개정공동성서일과』는 3년 주기로 읽는 회중 낭독 일과에 요한계시록은 여섯 개의 짧은 본문만 실었다. 이때 선택된 본문을 보면, 하늘의 예배 장면과 약속된 새 창조를 다룬 본문은 포함되었으나 집승과 용, 큰 바벨론, 하나님의 진노의 인/나팔/대접 심판 순환, 일곱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다룬 본문은 편익상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당혹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을 기분 좋은 본문만 선택된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은 바로 빠진 본문들이라는 점이다.”

학자와 교사들은 이 수수께끼 책을 푸는 열쇠를 나름대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많은 대중 설교자와 저술가들은 요한계시록을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맞추어 해석한다. 할 린지의 『고(故) 위대한 행성 지구』나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의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와 같은 베스트셀러는 세대주의자의 미래주의 관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인기를 끌었다. 이 미래주의 관점은 예수가 재림하시리라는 점과 하나님 이전에 주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점을 올바르게 강조한다. 그러나 많은 자칭 “예언 전문가”의 확신에 찬 예견과 분석은 종종 핵심을 놓치고, 요한과 요한계시록 최초 독자의 첫 세기 말 배경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한편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엄밀히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집승”은 먼 미래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인물이 아니라 당시 첫 세기 말에 황제 숭배와 경제 압박으로 위상 숭배를 조장하던 로마 제국이다. 이런 역사-비평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나 요한계시록 최초 독자와 올바르게 관련시킨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신자들이 적용하고 따라 살아야 할 기독교 성경의 관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브라리언 탬, 〈NSBT 요한계시록 성경신학〉



남자들은 패러독스 속에서 살아간다. 절친한 친구를 갖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어떤 이가 정말로 우리를 알고 나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걱정

한다. 그래서 어떤 이가 우리와 지나치게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그에게서 물러서며,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어떻게 그와 헤어질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는 인정, 즉 다른 사람에 의한 용납이 필요하다. 다른 이들에 의해 거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거부되는 위험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패트릭 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투데이

유해석 박사의 기독교인을 위한

이슬람 칼럼

“오늘의 유럽은, 내일의 한국이다!”
“이슬람은 이단인가, 타종교인가?”

다문화 시대,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슬람도 기꺼이 포용하는 것이 정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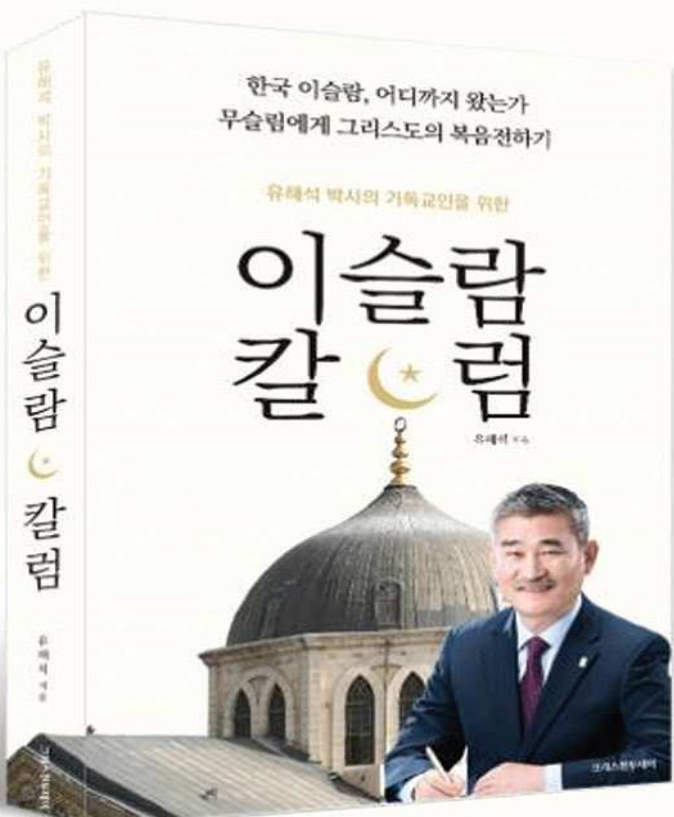
이슬람은 오늘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에 대한 탁월한 대안!
정일웅 박사 (홍신대 전 총장)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며 체득한 물의 언어, 바로 이 책입니다!
소강석 목사 (예장 합동 부총회장, 새에덴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
김경원 목사 (서현교회 원로, 한목협 전 대표회장)

구체적 대안이 제시돼 살아있는 글!
안민 총장 (고신대)



유해석 박사의 기독교인을 위한 **이슬람 칼럼**
유해석 지음

날 새니 조금씩 하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천 번의 기도와 백 번의 만남

엘림전도훈련원 엄호섭 원장(5)

5. 생활 전도로 무엇인가? I

전도란 나의 지성(Intellect) 나의 의지(Will) 나의 감정(Feelings) 나의 마음(Heart)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다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기도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살전 1:3)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새 천년 성장의 귀로에 선 한국교회에는 이제 새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하며, 새 술을 담은 새 부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전도는 쉽다' 나가서 외치기만 하라가 아니라 나를 아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며 전도해 정착시키는 생활 전도가 필요하다.

1)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전도 (은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 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수직적인 관계(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수평적인 관계(순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 이 관계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음은 신자와 불신자간의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는 순종으로 이루어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

(1)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해야 한다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자연 과학은 진화론을 제시하지만 진화란 과학의 가설이지 확실한 실험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창조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종교의 영역이며, 일반 지식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범주에 속함을 믿어야 한다.

성경의 첫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였고 사도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롬 11:36)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피조물로 지으신 목적을 바로 알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뿐이요 영원히 그에게 영광이 있음을 신앙의 차원에서 고백했다. 다윗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시 73:25)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

만물과 역사의 목적이 창조주께 있으므로 그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속죄와 의롭다 하심의 관계

① 속죄의 관계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으며 예수 혼자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



수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막 2:1-12)을 보면 예수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조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5)고 했을 때 서기관은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속으로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가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막 2:9-12)라고 했다.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다. 복음과 전도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② 의롭다 하심의 관계

성경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롬 4:25)고 하였다.

아담의 타락 이후 불의한 모든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해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속죄한 받은 우리를 의로운(稱義 Justification)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서에는 첫째,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둘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뜻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사형을 구형 받았으나 무죄라는 재판관의 선언을 받게 된 죄인의 심정이 곧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되어야 하며,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에 빛진 자임을 알아야 한다.

(3) 복음에 빛진 자의 관계

바울은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 1:14)고 했다. "빛진 자"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 "오페일레테스"로 빛을 갠으려는 깊은 의무감에서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다. 주기도문에서는 죄를 '빛, 오페일레마'로 표현하고 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와 직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생명과 인격으로 빛졌던 것이다.

① 죄에 빛진 자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하에서 태어난다. 이 상태를 신학에서는 원죄(peccatum original)라 하고 원죄 밑의 다양한 자범죄(peccatum actuale)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② 은혜에 빛진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한 최대의 은혜다.

③ 사망에 빛진 자

값없이 내리신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죄에서 놓이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잡이, 복음의 빛을 갠 주 앞에서 일일 것이다. <계속>

성경속으로

성모 방문

두 어머니의 만남

누가복음은 두 가지 놀라운 임신 소식을 전한다. 하나는 늙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임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이다. 그 두 가지 소식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했다. 엘리사벳은 늙은 남편 사가라의 아기를 가졌고, 마리아의 경우에는 아기 아버지가 신이였다. 누가복음 1:39-45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석 달 동안 방문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오자 엘리사벳의 아기가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한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일은 성모방문이라고 불리며, 로마가톨릭은 매년 5월 31일을 성모방문 축일로 정했다. 이 장면은 많은 예술 작품에 묘사되었으나 영화는 TV 미니시리즈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새로운 명령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전날을 성목요일이라고 부른다. 예수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진 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다가 체포된 날이다. 성목요일의 'Maundy'라는 말은 라틴어의 Mandatum novum(새 계명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훌륭한 스승은 남들에게 봉사하는 사

성목요일

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있다(요한복음 13:34).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목요일 예배에 성체성사를 포함시키며, 신도들이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목요일 예배를 볼 때 왕이 빈민들을 초대해 발을 씻어주는 관습

이 있었다. 이 관습은 현재까지도 전승되지만 지금은 발을 씻어주는 대신 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대상도 '빈민'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노력한 사람(주로 노인)으로 바뀌었다. 영국 조폐국은 성목요일에 왕이 빈민들에게 나눠줄 돈다 마니(Maundy money)라는 은화를 주조한다. [출처] 들녘출판사 (「바이블 키워드」, 2007. 12. 24., J. 스티븐 랭, 남경태)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영혼의 치료자 나사렛 예수II

나사렛 예수

3. 영혼의 병을 고치는 예수

예수는 영혼의 병을 고치셨다. 영혼의 병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한다. 영혼의 병은 단지 상담기술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치유를 받아야 한다. 영혼의 병을 치유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가버나움(Cabernaum)에서 지붕으로부터 달려 내린 중풍병자에 대하여 저희 믿음을 보이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이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눅 5:20).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를 참람하다고 생각한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눅 5:21). 예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눅 5:24). 여기서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나 그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의 죄,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

예수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어느 죄인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일이 있었다. 죄인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바리새인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눅 7:39)라는 경멸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를 아시고 예수는 여인의 행동이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내면의 진정한 감사에서 나온 행동임을 말해주신다. 예수는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눅 7:44-48).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는 비방을 받는 자였으나 예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인은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은 회심과 하나님의 사유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다. 여인의 병든 영혼이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 26:26). 예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7-28)고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는 명료한 메시아 의식을 가지시고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다.

4. 믿음을 보시는 예수: 이신득의(依信得義)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예수에게 요청을 한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하라고 요청한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까”(마 8:8). 이에 예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9). 이 백부장은 이태리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는 칭찬하신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깨뜨리고 내려진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함에 있어서 예수는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막 2:5). 예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보이고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눅 7:47)고 말씀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도 예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눅 22:19-20)이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십자가상에서 한 편의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를 비방하는 것을 듣고 다른 편에 달린 강도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향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게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를 향하여 소원을 말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보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축복하신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나사렛 예수의 역사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다.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서를 통하여 역사적 예수에게로 접근하게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끝>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

은혜 한 장

말에 담긴 지혜
27가지

- 01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 02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기다린다.
- 03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 04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 05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 06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 07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 08 소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 09 말을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하라.
- 10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위력이 있다.
- 11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 12 잘난 척하면, 적만 생긴다.
- 13 두고두고 껄뽀한 생각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 14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 15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는다.
- 16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 17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 18 쓴 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 19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 20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의 차이다.
- 21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 22 말도 연습해야 나온다.
- 23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 24 약점은 농담으로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 25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빚장이 잠긴다.
- 26 때로는 알면서 속아 주어야.
- 27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네이버에서 **N** 멋진 인생 멋진 말 을 검색하세요!

오늘의 예화

무조건 용서

메어리 웰크는 자신의 저서 「황금 열쇠」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거지된 비방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한 여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자그마한 촌이었기 때문에 그 거지된 비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즉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그녀가 나쁜 여자인 줄로 잘못 알게 되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도

그녀를 멀리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목사 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을 한없이 마워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녀는 7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징계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만일 그들이 당장 용서를 구한다면, 나 역시 그들을 용서

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꼈다. 이에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교회로 돌아갔을 때, 놀랍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녀를 환영했다.

이로써 결국 그들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용서하기를 실패하면 분노, 원한, 불만 그리고 불화가 초래된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의 날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 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신분의 자학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다. 언덕에 올라와 아래를 보던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꾼다. 자신은 똑바로 걸어 온다고 왔는데 눈위의 발자국은 어디저리 비뚤어져 있었다.

완전히 못한 인생과 인간의 한계를 비뚤어진 발자국에서 여인은 깨달았다. 그녀는 친어머니를 용서하고 인생의 전기를 마련한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안의 미움과 증오를 걷어내고 연말을 “용서의 날”로 보내자.

맑은 숲속 상쾌한 향기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라파로페 피톤치드

숲을 담은 피톤치드로 달라진 실내공기를 느껴보세요!

피톤치드 스프레이

직접 사용한 리.얼.후.기

라파로페피톤치드의 더 놀라운 후기들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wine59/222087836309>

★★★★★ 몇일 써보니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재채기들과 코감지러움? 그렇게 좀 완화됐어요~여행도 외출도 쉽지 않은데 라파로페 피톤치드 하나로 숲이 우리집으로 온기분입니다

★★★★★ 뿌려주니 나무숲속에서 나는 느낌마냥 너무 시원하고 청정된 향기가 마구마구 풍겨와서 좋다!

★★★★★ 인공향이 아닌 천연향이라 더 좋은 느낌 이고, 저희 아들 비염 이 있어서,요즘 환절기라 더 심해 지는데,꾸준히 아들방에도 라파로페 피톤치드 뿌려 주니, 확실히 재채기가 줄었습니다.

★★★★★ 기분이 상쾌해지니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강력한 진드기퇴치와 탈취 효과가 있어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강력한 효과!!

아토피, 천식, 비염, 피부가려움을 유발하는 진드기 고민 탈출!

- ✔ 스트레스완화
- ✔ 강력한 탈취효과
- ✔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 개선
- ✔ 면역기능 증대 효과
- ✔ 진드기 방지 효과
- ✔ 새집 증후군 개선 효과

전화번호 043-900-0367 / 010-7767-0388 / 010-6410-0377

본사 및 연구소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벤처연구센터 기업연구관 2동 605호/408호

제조공장 | (281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길 38 충청대학 R동 117호

www.rafarophesoap.com

라파로페 본사 쇼핑몰

천로역정

고종 “짐을 협박하여 체결한 조약은...”

소설 꽃불 영혼 (16)

나라를 빼앗기다

남강은 조국의 산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혈액이 없는 것을 탄식했다. 한 번은 어느 아이가 소를 끌고 그의 앞을 지나간 일이 있었다. 소도 말랐고 끌고 가는 아이도 혈액이 없었다.

“아, 우리 조국은 소까지도 저렇게 말랐구나.”

그의 말엔 이 땅과 백성과 이 땅의 짐승과 벌레까지도 불쌍히 생각하는 감정이 아려 있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한 것은 단순한 내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민족의 고난 때문이었다.

그는 이 민족에게 고난이 오는 근본 원인은 힘이 약한 데 있음을 알았다. 힘을 기르는 일이 교육과 산업인 것을 깊이 깨달았다. 남의 힘을 빌리거나 총칼만 갖고는 한때의 승리는 거들지언정 민족의 참된 힘을 기르는 일이 못 된다.

남강의 민족운동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덕스럽고 밝고 힘차게 만드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민족운동은 민족의 광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 안창호가 망명 길에 오르면서 남강에게 당부했다.

“이제 우리 신민회의 국내활동은 선생님께서 맡아 주셔야겠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흠,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소. 몸조심이나 하시오.”

남강은 대답하긴 했지만 도산이 없는 신민회 활동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동안 신민회 활동은 도산이 주관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지도자가 나선다면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할 것이라 남강은 염려가 앞섰다. 그러나 그는 곧 결심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나까지 실망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던 양하지 않은 간에 신민회 활동은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하고 이미 나에게 큰 사명이 맡겨져 있지 않았는가.”

남강은 신민회 사업의 하나로 평양에 태극서관

을 세웠다.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서적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편집부와 인쇄시설까지 갖추고 각종 간행물과 책을 출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학생들이 쓸 교재와 학용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태극서관은 신민회 회원들의 연락처나 집회 장소 역할도 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와 <소년>지의 평양 판매지국도 태극서관 안에 있었다. 영리 추구보다는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일본은 결국 우리나라를 한입에 집어삼키고 말았다.

오늘의 참변은 예상된 일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침략의 원동력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11월 9일 특명전권대사로서 한국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친일단체인 일진회-進黨會를 뒤에서 조종하여 대한제국을 허수아비 꼴로 만들려는 흥계를 꾸렸다. 그런 다음 일본 군사를 이끌고 경운궁으로 들어갔다.

그는 고종 임금과 국무대신들을 총칼로 위협해

을사늑약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고종은 끝까지 거부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일단 외부대신 박제순의 직인을 가져와 조약문서에 찍게끔 했다.

회의장에서 몇몇 대신은 그 불평등한 조약에 반대했지만,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고종 임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약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국가이지만 통치권을 모두 빼앗겨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세찬 바람과 함께 을씨년스럽게 부슬부슬 내렸다. 나라 잃은 백성의 눈물과도 같았다. 그와 달리 을사조약들은 일본으로부터 백작의 작위와 많은 돈을 받고 희희낙락했다.

고종은 “짐을 협박하여 체결한 조약은 엉터리다”라고 선언하고, 해외에 특사를 보내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영터리 조약에 대한 반대운동과 항일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본 경찰을 공격했다. 일본 군대와 경찰은 총칼을 앞세운 마구 쏘고 찔렀다.

<계속>

*이 작품은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의 새로운 자료 발굴과 연구 성과에 도움 받았음을 밝힌다.

김영권 작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문학예술학교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작가와 비평>지의 원고모집에 장편소설 <성공광인(成功狂人)의 몽상: 캔맨>이 채택 출간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작품으로는 청소년 소설 <보리울의 달> <퀴리부인: 사랑스러운 천재>가 있으며, 전통시장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보통사람들의 오아시스> 등을 썼다.



만나라이프

예배에서 제외된 자

신명기 23:1 - 23:7

1 신년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 사생자는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십대까지라도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찌니라

7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나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나니

이교적인 요소를 지닌 자(23:12)

여기서 여호와와 의 총회는 예배를 위해 함께 모



인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교적 종교의 영향을 받아 고의로 거세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신전 창기들의 자녀들로 태어났을 때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지만 자신의 종교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방의 예배는 결코 혼

합될 수 없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는 것이듯 예배드리는 자도 순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이교적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불순한 것들과 혼합하려는 태도도 내려놓으십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23:3-6)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아무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니다. 모압 사람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악한 동기로 발람을 이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에는 암몬 사람같이 소극적이든 모압 사람같이 적극적이든 죄의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면에 죄가 들끓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역겨워하십니다. 죄를 품은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돌아서면서 죄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깨끗이 소멸된 상태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반대로 애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애돔 사람은 형제로 여겨야 하며,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출처] 생명의 삶

신구약탐방

움카이스(Umm Qeis) 가다라(Gadara)

이 도시는 성경의 가다라 지방이다. 골란 고원과 헬몬산은 물론이고 갈릴라에서 사해 바다까지 바라다 보이는 산지 평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대의 유적지는 헬라-로마-비잔틴시대를 이어가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218년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에게서 빼앗았다. 기원전 2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가다라를 가리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언급하고 있다. 기원전 98년경에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이곳을 정복하기 위하여 10개월 이상을 소요했다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가다라가 얼마나 함 있던 도시였는지를 보여준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데카폴리스의 일원이 되었으며, 자체 동전을 사용할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년,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곳을 헤롯왕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원치 않았던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헤롯에게 저항하였다. 헤롯이 죽은 기원전 4년 이후에는 시리아에 합병되었다. 3세기에는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의 박해로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4세기에는 이곳 출신의 주교가 나케아 공의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635년 펠라에서 이슬람 군대에 비잔틴 제국에 패



가다라 지방의 한 유적지

배함으로 이제 가다라는 이슬람 세계의 한 부분이 되었고, 메카 순례의 주요한 교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8세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지진과 9, 10세기에 이곳에 창립했던 전염병으로 가다라는 잊혀졌고, 12세기 이후로는 움 카이스로 불렸다. 아랍 마을이 다시 조성되었지만 그 규모는 작았다.

1806년 고고학자 울리치 시젠(Ulrich Seetzen)이 이곳을 탐사하고 가다라 지방 유적지임을 확인하였으며, 1970년대에 이를 때까지 그냥 하나의 폐허로 남아 있었으나, 그후 지속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 4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이크가 돋보인다. [출처] 만나월드

탁월한 선택!!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발효 우슬환

관절통!!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발효면역 전문업체 **순수자연건강**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샘플을 함께 드립니다!**6번 완전 발효시켜 **주요성분이 빠르게 흡수 됩니다!**무릎·허리·손가락 등 **관절 통증 마디 케어!!**할인
판매

발효우슬환 3통 + 샘플 3통 (3개월분) = **135,000원**
 발효우슬환 1통 + 샘플 1통 (1개월분) = **48,000원**

제품구입문의 **02-512-8260**

NAVER

히포힐스

히포크라테스 & 히포힐스

지창욱,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재능기부 참여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배우 지창욱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I’m an Artist’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밀알복지재단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해당 캠페인을 마련했다.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고유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 달라는 취지다.

지창욱은 캠페인 홍보 모델을 자처하며 사진과 영상 촬영에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영상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 황진호 씨와 콜라보레이션 작품 ‘바넨더를 함께 그리는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황 씨는 밀알복지재단의 ‘브릿지온 아트데(BridgeOn Arte)’ 소속 작가로, 작품 활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펼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창욱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창욱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도 밀알복지재단



지창욱이 발달장애인 황진호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에서 진행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하우유 씨 미(How You See Me?)’ 캠페인에 동참하며 장애아동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멈춰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지창욱은 “황진호 작가를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셔서 놀랐다”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예술가들, 특히 브릿지온 아트데와 같은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경우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밀알복지재단 이수은 홍보실장은 “장애인인 ‘장애인’이 아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지난 4월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동참해주시는 지창욱 배우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장애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48개 운영시설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경외의 하나님 주제로 Numinous 만들었어요”

서울 장신대 학교 예배찬양사역대학원에서 예배인도전공을 하고 있는 박솔빈이 최근 디지털싱글 ‘Numinous(누미너스)’를 발표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Numinous’라는 단어는 라틴어 Numen(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신비 혹은 경외심을 불러넣는다는 뜻으로 신의 임재 혹은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누멘적 감경’이라고 한다.

박솔빈은 “모티브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시작 되었다”고 밝히고, “첫번째는 아프리카를 다녀온 친구가 밤하늘을 보는데 쏟아질듯한 별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곧 두려움이 느껴져 하늘을 잘 쳐다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수업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것이 ‘누멘적 감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생각으로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심어주신 ‘본유 관념’이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 전율, 떨림,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 대한 매혹과 끌림을 갖게 된다”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 분이 두려워서가 아닌, 혹은 그 분이 위해를 가해서가 아닌, 존재 자체의 다름에서 오는 경외심”이라 했다.

박솔빈은 “이번 디지털 싱글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곡을 수록한 미니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 밝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섯가지의 언어를 주제로 구성할 생각이다. 그 언어는 원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 싱글 첫곡이 경외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있는 Numinous”라고 말하고, “내년에 발매 예정하고 있는 곡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는 From 위로지”라며 “성경에서 나온 위로는 원어로 파라클레시스(헬라이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그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진정한 위로를 얻으려면 곁으로 부르는 것, 즉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라 했다.

그는 “세상에는 수많은 위로곡들이 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될거야, 힘내” 같은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려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4곡을 더 발매할 예정이며 한국 한국 주제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나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Good TV	CTS 기독교 TV	CGN	Cchannel	CBS
오전	5:00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말씀의 센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CTS새벽예배-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30 생명의 말씀	00 생명의 삶 2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 - 김상복 원로목사 30 복음강단 - 예수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올린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비전설교 대구동부교회 김서택 목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00 생명의 말씀-장상길 목사(송도주사랑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생방송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50 노변담화	00 TV 설교/금포교회 이우배 목사 30 달콤한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7:00	10 은혜와 찬양 20 비전설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말씀의 센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00 [말씀] 이영호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5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00 'Pray with us' C채널 중보기도회 20 김삼환 목사의 칠 번을 하루같이	10 날마다 기막힌 새벽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8:00	50 기도하는 노크토크	0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30 자판기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0 말씀의 창 - 신성중앙교회 김연희 목사 30 비전메시지 -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2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14강 - 신우인 목사 "놀러나 가지꾸나" (본문 - 출애굽기 14:13-14)
	9:00	00 송년특집 매일 주와 함께 가수 특집	00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40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 식물, 동물 편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3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40 'Pray with us' C채널 중보기도회	10 새롭게 하소서
	10:00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00 새예덴강단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 뉴스
	11:00	30 말씀의 센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생방송] CTS 뉴스 30 두란노 성경교실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20 은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00 올포원

오후	12:00	00 GOODTV 뉴스 20 기도하는 노크토크 30 능력의 기도	00 CTS남만 레코드 <워십 코리아> 30 생명의 말씀-유영만 감독(하늘중앙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정감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00 TV 설교/누비전교회 정성환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어주봉 목사
	13:00	00 말씀의 센터 보라성교회 송일현 목사 30 비전설교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에스라 성경학교 50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	00 [말씀] 안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00 C채널 스페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0 CBS파워특강/CBS 파워특강
	14:00	00 "2020 감사특집" 너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내라!	00 [생방송] 콜링갓 50 #클립CCM 시즌2	20 생명의 삶 4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00 말씀 관통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성지 다큐멘터리 - 그 길을 걷다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15:00	00 오 자유여!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55 신앙에세이	20 [삶&가치] 한성열 교수의 발달캠프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노변담화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16:00	00 은혜와 찬양 30 하늘양식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30 생명의 말씀-손재운 목사(안양중앙교회)	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시즌2 3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00 진짜 영성공부 5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00 CBS성서학당:마가복음 39강 - 송태근 목사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조건" (본문 - 마가복음 11:20-25) 50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
	17:00	00 말씀의 센터 수지산성교회 황규식 목사 30 말씀의 센터 봉담중앙교회 이선 목사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케빈 드영의 시편 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6개의 우물을 파고 나서야 깨달은 것! 사메리 '회사 체질이 아니려서요' 저자
	18:00	00 행복 플러스 50 더 메시지	00 날마다 큐티하는 어린이 30 내가 매일 기쁘게	2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30 말씀의 창 - 선교중앙교회 곽태권 목사	10 나를 살리는 찬송 30 TV 설교/대전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목사

저녁	19:00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25 ACTS 사도행전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말씀] 서정오 목사(동승교회) 40 [연말특집 다큐] 길 위의 노래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 30 TV 설교/신촌대현교회 최영대 목사
	20:00	0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3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30 나침반 바이블 - 연말특집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성지가 좋다	00 더 바이블
	21:00	00 비전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은혜와 찬양 50 GOODTV 뉴스	00 생명의 말씀-김명현 목사(이천순복음교회)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본방)	10 C채널 가정예배 - 이성훈 목사 30 클래식 말씀의 창 - 김상복 원로목사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14강 - 신우인 목사 "놀러나 가지꾸나" (본문 - 출애굽기 14:13-14) 50 CBS 뉴스
	22:00	10 이단사이렌	00 CTS 뉴스 30 빌리 그레함 클래식 명설교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길따라 영성따라 30 장학봉 목사의 통&통	10 올포원
	23:00	1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여기에 55 신앙에세이	10 복음행방, 신앙을 읽다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00 비전메시지 -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50 인생을 바꾸는 7분 예수가 길이다	10 새롭게 하소서
	24:00	00 이영훈 목사의 글로벌설교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00 콜링갓 50 어린이 찬양 (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 한 곡 감상하기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신성진 대표의 이야기 속 돈 이야기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00 날마다 기막힌 새벽 2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0	00 월드미션투데이 30 GOODTV 오늘의 예배	30 <교회행진> 나의 고백 10minutes 50 TETELESTA 다 이루었다	40 미니콘서트 심 50 나침반 플러스 - 믿음-	00 새예덴강단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2:00	00 GOODTV 다큐 스페셜 KCA 공공공익 제작지원사업 다큐멘터리	20 에스라 성경학교 40 #클립CCM 시즌2 50 자판기	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창 - 후리성제일교회 김정호 목사 40 성지가 좋다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0	00 주일예배실황 금관교회 김정민 목사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00 [Global Semon] Tim Keller's Calling 3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00 더 바이블
	4:00	00 마커스워십 3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예배교회 조간희목사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성지 다큐멘터리 - 그 길을 걷다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00 CBS성서학당:요한복음 46강 - 김기석 목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문 - 요한복음 14:8-21) 50 CBS 교회소식

“비천한 자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진정한 예술”

기독교미술 작가소개

강지웅 작가

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기독교 미술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기독교 미술작가 소개> 코너를 준비했다. 이번에 소개할 기독교작가는 강지웅 작가이다.

■강지웅 작가님 소개 부탁 드려요.

“이것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그 유명한 돌이다. 하나님께 만지시고 소유하시는 것에 어찌 그만한 변화가 없으랴” - 조지 허버트

제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이기적으로 살아간 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려오고 있는 기독교 작가 강지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미술을 하게 된 계기는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던 저에게 부모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은 정말 거절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해도 가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방식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적당히 주일만 교회에 들르고, 그 억울함에 대한 저의 반항심은 저를 더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 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옳다고 믿고 열심을 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공부 등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스스로 외톨이가 되었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늘 폭력적이었습니다. 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대학은 물론 실패했고, 재수생의 삶도 물론 실패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닫힌 방문 뒤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신기하게도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수생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미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은 한마디 핀잔도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재수생 때까지 연일 한 번 잠아보지 않았던 제가 일 년 안에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화가로서 그리는 고난 받는 그리스도는 저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찬송이 절실히 이해되어집니다.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일까? 잘못 고르신 건 아닐까? 아내와 자녀를 보며 늘 생각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구원의 역사가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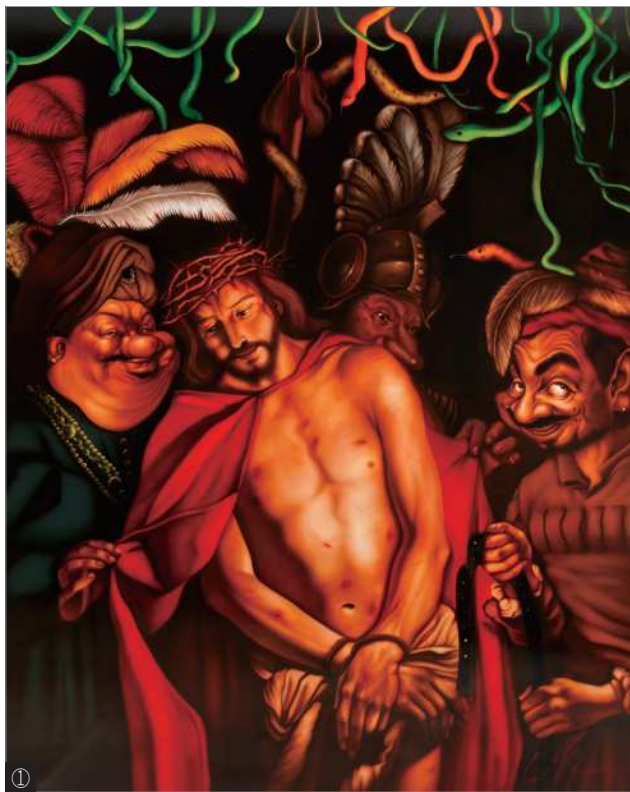
“2008년 첫 전시 후 지금까지 제가 예술가로 살아온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의 고백처럼 때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많은 순간들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신촌 초 작은 오피스텔 방에서 첫 개인전을 준비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그림을 그렸던 추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작업실도 따로 있고, 형편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 어려웠던 때보다 욕심이 앞서고 감사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작품에 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표 작품 소개해주세요.

<‘Ecce Homo’ 에게 호모(보라 이 사람이로다) 시리즈>

“‘에게 호모’는 빌라도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망토를 걸친 예수를 가리키며 군중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고 세 번 외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의해서가 아니며, 불과 몇 사람의 개인이 자행한 만행도 아닙니다. 또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오직 그 세대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인류의 한 사람이자 후손입니다.

그분은 비천한 종의 모습이었기에 동시대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1세기의 실존존재가 궁경(predicament), 즉 무의미, 불안, 소외에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성육신(Incarnation), 즉 메시아(MESSIA)에 대한 기억상실증(амnesia)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화를 통해 종교를 보았다면 현대인은 종교화를 통해 현실을 봅니다. 본인의 작업은 우선 자신의 세계를 다시 뿌리의 시간에



For the smarfool (smart+fool) 똑똑한 바보들을 위하여 시리즈

③ For the smarfool 130.3x130.3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09년 작, ④ For smarfools 116.7x91.0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10년 작 ©강지웅 작가 제공

덧대고, 예수 그리스도와 현실을 결부시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For the smarfool (smart+fool) 똑똑한 바보들을 위하여 시리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흔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나.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비행기가 달나라를 오가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생명을 잃는 연약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무가 전문화 되고 기계화된 현대인은 자기영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필연법칙(必然法則)에

제배되어 살아왔습니다. 또 의식주에 대한 온갖 노력과 투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히로에락이 교차되고, 육체적으로는 바람, 추위와 더위, 물과 불의 재앙을 반복하며, 사회적으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권력 투쟁과 외우내환(外憂內患)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철학은 철학대로 학문의 권위에만 몰두하고, 과학은 살인무기의 생산을 제한하는데도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는 교권쟁탈에 여념이 없으니 오늘날의 현대인은 무엇에 의지하여 안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자기상실에서 허무적



‘Ecce Homo’ 에게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시리즈

① Ecce Homo 162.2x130.3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13작

② 이 사람을 보라 116.7x91.0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12년 작

©강지웅 작가 제공



⑤ or Smarfools 116.7x91.0cm acrylic & urethane on canvas 2010년 작 ©강지웅 작가 제공

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면할 기회가 줄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이전 보다 더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요?

“박사과정시절 작업을 발표할 때 ‘박사까지 공부하시는 분이 그거 왜 그려요?’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진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많이 불편하고, 더군다나 예술로 표현화시키는 것이 지극히 시대상이 뒤떨어진 한 개인의 쓴소리 정도로 보여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작업실에 돌아와 아예 앞에 앉아 ‘내가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 공부하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제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 아래 미술언어로 설명을 다 하려한 참 어려웠습니다. 당시 한 동안 제가 가져왔던 작업의 형식과 개념들이 흔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했던 저의 교만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애써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했지 정작 예술가의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편치만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1번 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전시와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북음 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북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강지웅 작가 프로필

국민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수료

개인전 10회 및 그룹전 50여회
제21회 기독교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국민대 백석대 출강
신일교회 집사



합동총회본부, 장로회신학대학교, 새에덴교회, 도림교회, 치유하는교회, 일산등본한교회, 포항연일교회, 포항동부교회, 광주양림교회, 경기중앙교회, 서울강동교회, 동두천두레교회, 생명생동천교회 계룡나눔의교회, 인천계산교회, 부천서문교회, 싹별중앙교회, 성남세광교회, 전주동부교회, 천안장로교회, 수원왕훈대학교 외 1000여 교회가 잘 사용하고 계시며, 동화군보건소 22대 외 3000여 관공서(회사)에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광기업이 명예를 걸고 책임보증 합니다)

※ 품질보증, 책임보증 ~교회가 만족할때까지~
열화상 카메라 더 이상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148만원~198만원)

~ 코로나 시대에 ~

교회필수품

열화상 카메라 생활방역 시대의 필수품

방문자 발열체크 걱정 끝!

- 체온 측정 (±0.3℃) 이 모두를
- 마스크 착용 확인 단 한 번에!
- 교인확인 (얼굴 인식) O.K

★ 방문자 최대 3만명 기록

- 방문자 정보 단말기에서 바로 확인 가능
- 네트워크 연결 시, P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단말기에 직접 USB 연결 후 엑셀 파일 저장 가능
- 쉬운 교인 등록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괄등록 가능)

모든 출입구에 설치 / 적용 가능
교회, 기도원, 학교, 학원, 음식점, 마트, 소방청, 놀이공원, 숙박업소, 아파트 단지, 대중교통, 그 외 모든 사업장

(주)영광기업 1588-0691 1년365일
010-5779-0691 바로처리

※영광기업보다 싸고 좋은 기계가 있다면 사십시오!
A/S 1년 무상교체 ※ 전국대리점 모집중 (장로님, 집사님 환영)

스마트 손소독기 K9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한번에!

비접촉식 발열체크 및 손소독

01 센서를 통한 비접촉식 손소독 젤 분사로 깨끗합니다.

02 적외선 비접촉식 온도 측정으로 안전합니다.

248,000원 ▶ 148,000원에 드립니다

복사기 만대 이상 판매, 열화상 카메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화상 카메라 구매가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교회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접촉식온도계 + 자동손소독기 + 발열대 + 충전기 + 소독젤 5종류(전부포함)를 택배비 정도만 받고 148,000원에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 소개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웃 교회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https://youtu.be/CbLx-7X0fG4>

(주)영광기업 1588-0691 1년365일
010-3651-8572 바로처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쉽고, 빠른 자동열감지기

터치가 아닌 감지 방식으로 더욱 안전한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특징과 장점

- 자동 인식 기능으로 손목을 갖다대면 자동으로 열 감지 (1~2초)
- 터치가 아닌 감지 방식으로 방문자들의 체온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감지
- 화면에 열감지 측정 온도가 표시되며 음성으로 정상, 주의 과열 등으로 지원되며 화면으로 초록(정상), 노랑(주의), 빨강(과열) 으로 도 표시되며 고열 시 사이렌 경고음이 울림
- 핸드폰 보조 배터리 사용 가능

정상입니다~

260,000원 ▶ 148,000원

Body temp +31.5 36.5 37.5
정상 주의

Body temp +31.5 38.5 39.5
과열

(주)영광기업 1588-0691 1년365일
010-3651-8572 바로처리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진심을품은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료는 건강나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담은 진심만 담다!



•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이란? 피보험자가 고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 산출모델을 통하여 건강나이를 산정하고, 건강나이 적용시 주계약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주계약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형 및 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100%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100%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2791호(2020.09.29)」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